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연구

2013. 12



- 연구책임 || 고 성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공동연구 || 강 윤 주 (경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나 명 철 (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
- 박 지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차장)
-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 정 길 선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 정 경 섭 (민중의 집 공동대표)

서 문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자생적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확대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조사연구에 따르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시민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높이고, 공동체문화 형성과 발전, 그리고 도시문화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8년 각각 수립한 추진계획은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풀어갈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성숙, 심화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다르게 추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는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구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들이 정책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이 만든 지역문화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연구 추진방식은 성남문화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연구방식으로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전통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를 통해 수립한 계획들이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재단 실무담당자들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높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 선 회

< 목 차 >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3
3. 연구 방법	4

II. 국내외 생활예술 정책 환경과 흐름	7
1. 국내 생활예술 정책 환경 및 흐름	7
1) 정부 생활예술 정책 총괄	7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9
3)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의 전망	12
4) 마을공동체에서의 생활예술	13
5) 기타 생활예술 관련 사업	14
2. 해외 생활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16
1) 해외 사례	16
2) 시사점	31

III.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	35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개요	35
1) 사랑방문화클럽의 목적 및 활동	35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내용	35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과정	39
1)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기(2006년)	39
2) 사업 실행 시기(2006년~현재)	42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54
1) 추진 성과	54
2) 추진 문제점	57

IV.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2014~2020)	59
1. 성남문화재단 3단계 7개년 생활예술 정책 방향	59
1) 첫 번째 키워드: 자발성 축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	59
2) 두 번째 키워드: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60
3) 세 번째 키워드: 문화매개자로서의 재단 상근자	61
4) 네 번째 키워드: 사랑방문화클럽의 공간 확보	62
5) 다섯 번째 키워드: 창작 행위의 활성화	63
6) 여섯 번째 키워드: 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	63
7) 일곱 번째 키워드: 사랑방문화클럽의 사회 공헌 활동	64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과제	65

<표 15>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활동 클럽 지역별 분포(2012년 기준)	53
<표 16>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공연활동 클럽 장르별 분포	53
<표 1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전시활동 클럽 장르별 분포	53
<표 18>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활동 클럽 기타 장르별 분포	53
<표 19>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정책별 추진과제(2014~2020)	70
<표 20> 성남문화재단 및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의 사용 구분	73
<표 2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활동 구성	76
<표 22> 역대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장르별 구성 현황(2007~2013)	78
<표 23> 사랑방문화클럽 장르별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78
<표 24> 사랑방문화클럽 선택적 클럽네트워크활동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80
<표 25>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네트워크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81
<표 26> 전국 단위 교류 네트워크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83
<표 27> 국제 교류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85
<표 28> 생활예술활동가의 유형	87
<표 29>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88
<표 30> 생활예술활동가 육성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88
<표 31>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93
<표 32> 문화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의 차별성	92
<표 33> 구별 거점 공간 상근인력 구성안	93
<표 34> 거점 공간 운영 및 참여자의 활동 내용	94
<표 35> 구별 거점 공간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95
<표 36>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96

<그림 차례>

<그림 1> 5대 정책사업 개념도(2006)	1
<그림 2> 사랑방문화클럽 심벌 및 로고	35
<그림 3>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요구사항	40
<그림 4> 사랑방문화클럽 분류 모델	41
<그림 5> 사랑방문화클럽 단계별 성장 모형	42
<그림 6> 사랑방문화클럽 파타 및 지기 모임	42
<그림 7>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활동	43
<그림 8> 사랑방클럽전(2009)	44
<그림 9> 전문연 발표대회 시상(2009)	45
<그림 10>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2010)	46
<그림 11> 전국 색소폰 축제	46
<그림 12> 민관협력 시상 기념(2010)	47
<그림 13>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2011)	47
<그림 14>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및 실무 TF 회의	48
<그림 15>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49
<그림 16> 무지개다리사업 '다문화예술아카데미'	49

1) 자발성 축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강화 방안	65
2) 창작 행위의 활성화/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사회공헌 활동 방안	67
3) 문화매개자로서의 재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69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69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70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 실행방안	71
1) 자발성 축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강화 방안	71
(1)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예산제 시행	71
(2)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운영	73
2) 창작 행위의 활성화/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사회공헌 활동 방안	75
(1)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	75
2)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78
(3) 구별 네트워크 구축	80
(4) 전국 단위 클럽 교류 추진	82
(5) 국제 생활예술 교류 추진	83
(6)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적 여가적 활동 확대	86
3) 문화매개자로서의 재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87
(1)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 육성	87
(2)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	89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90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원조례 제정 추진	95

<표 차례>

<표 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1
<표 2> 생활예술관련 문화정책의 확대	8
<표 3>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11
<표 4>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 사례 비교	15
<표 5> 해외 생활예술의 역사적 변화	31
<표 6> 해외 생활예술 지원정책 및 사회적 위치	32
<표 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예산 추이(2007~2013)	36
<표 8>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총 문화공헌 활동 지원예산 추이(2008~2011) ..	36
<표 9> 사랑방문화클럽 연간 활동 내용	37
<표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프로젝트	45
<표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프로그램	46
<표 11> 사랑방전시유니트 활동(2011)	47
<표 12> 아트매칭펀 프로그램(2012)	49
<표 1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현황(2007~2013)	52
<표 14>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도별 참여 클럽/회원수(2007~2013. 7월)	53

<그림 17> 사랑방정오콘서트	50
<그림 18>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 수상(2012)	50
<그림 19>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 (2013)	51
<그림 20> 시민사랑방, 사랑방아트홀, 사랑방연습실(왼쪽부터)	52
<그림 21> 1단계(2006~2008) 주요 성과	54
<그림 22> 2단계(2009~2012) 주요 성과	55
<그림 23>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통한 이웃형성	55
<그림 24> 다른 사람의 입장/관점/문화의 이해정도	56
<그림 25> 지역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56
<그림 26>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문제점	58
<그림 27> 인천 문화바람 대표, 상근자(문화매개자) 및 회원들과 인천시민들의 관계성	61
<그림 28> 사랑방문화클럽 성장 모형	68
<그림 29>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간 추진 일정(2007~2013)	73
<그림 30>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예산제도 흐름(2014~2020)	71
<그림 31>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조직도	77
<그림 32> 사랑방문화클럽 장르위원회 구성안	77
<그림 33> 사랑방문화클럽의 선택적 클럽네트워크활동 영역과 순환	82
<그림 34> 구별 거점 공간 조직 구성	93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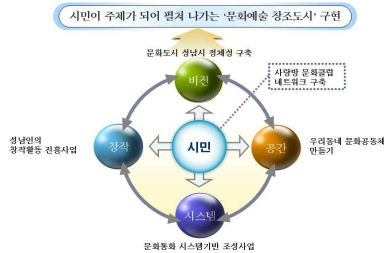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향후(3단계 7개년: 2014 ~ 2020)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총 3단계 15년에 걸친 발전계획을 수립

〈표 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단 계	시 기	목 표	핵심 추진 과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2006~2008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 활동 네트워크 구축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동네 유형별 커뮤니티 육성 모델 개발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2009~2013	문화공동체 활성화	· 동네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 활동 확산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공동체 발전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2014~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	· 전체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확대 및 발전 네트워크 확대 ·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이를 추진하고자 5대 정책사업을 기획,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5대 정책사업의 핵심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그림 1〉 5대 정책사업 개념도(2006)

- 이에 따라 1 ~ 2단계에서 수립한 계획 중 많은 부분이 추진되지 못함
- 이러한 점들은 최근 높아진 생활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1) 연구 목적

-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7년간의 사업 추진 내용 정리
 - 사업 실행 7년째를 맞아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내용을 정리, 기록하고자 함
 - 1단계(2006년 ~ 2008년), 2단계(2009년 ~ 2013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기록, 및 정리
-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 기존 총 3단계 15년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 및 성과들에 대한 정리를 통한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수정, 보완
-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참여자의 역량 및 인식 강화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관련 참여 시민(운영위원장 및 기획팀장), 제단 실무 담당자들의 생활예술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제고

2) 기대 효과

-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현장 추진성과 성과 제고
 - '성남시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에서 기획과 계획의 우수성에 비해 집행과 실행면이 부족하다고 지적
 - 이는 기획과 현장, 실무영역이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했으며, 연구내용의 공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임
 - 기존 기획과 계획을 현장 실행 인력의 참여와 고민 속에 재정립하여 실질적 추진력

- 향후 3단계 7개년 추진을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

- (1) 생활예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가와 긍정적 사업 성과 도출
 - 최근 몇 년간 생활예술에 대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 추세
 -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국내 생활예술정책 관련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국내 생활예술의 대표적 모델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옴
 - 2011년 문화부 발표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중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대표사례로 선정
 - 2009년, 2010년, 2012년 각각 국무총리상(1회) 및 문화부 장관상(2회)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됨
 - 지역 내에서도 성남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사업 인지도와 관심도 지속적으로 상승함. 현재 성남시를 대표하는 도시문화 대표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음
- (2)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표 및 기대효과가 미흡
 -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와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이 7년간 실행되어 오면서, 행정 중심적 사업 추진, 정책화된 사업에 따른 동기부여 및 기대 하락, 클럽 간 네트워크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사업이 안정화 궤도에 이르렀다고 하나, 당초 계획이 설정한 목표들(예. 동네단위 커뮤니티 구축 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¹⁾
- (3) 사업예산의 지속적 감소와 자생성 강화 요구
 - 2008년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시 재정의 축소에 따라 사업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
 -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 매년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예산의 자생성 강화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1)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사업 참여 시민 및 실무진의 역량 제고

- 연구과정을 통해 사업 참여 시민 및 제단 실무 담당자의 생활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 생활예술에 대한 이론적 논거, 국내외 생활예술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과과정 등을 이해함으로써,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적 시민으로써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3) 사업 참여 주체들의 사업 내용 공유를 통한 향후 민간 협력관계 강화와 연속성 및 지속성 제고

- 본 연구에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참여 시민대표가 참여
- 6대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및 기획팀장이 연구진에 참여, 향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연구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 실행할 수 있는 공유기반 마련
- 이를 통해 제단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협력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 실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국내 생활예술정책 및 사업의 선도적 역할의 지속적 수행

-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이를 기반한 새로운 시도들은 국내 타 지역 생활예술활동의 확대, 발전에 있어 선행적 경험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주요하게 참고할 사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3. 연구 방법

1) 연구진 구성

- 본 연구는 총 3개 영역(정책/기획/행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정책 : 생활예술정책 전문가
- 기획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시민 대표(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및 기획팀장)
- 행정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사업 담당자

2) 연구 추진

- (1) 사업 참여자들의 지난 7년간의 성과 평가 및 향후발전방안 의견 수렴(5월)
- 연구 개시 전 간담회를 통해 역대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총 5명)에게 지난 기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 (2) 생활예술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7월~8월)
-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평가를 수행
- (3) 연구 개시 전 문헌 및 서류 등의 사전 학습 및 조사 실시(8월)
- 연구 개시 전 그동안 제작한 정책보고서, 프로젝트북, 사업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각 개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전 학습
- (4) 상시적 연구진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8월~11월)
- 연구진은 과제별 상시적 연구회의(총 8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추진내용을 조율
 - 연구진의 담당 영역별 과제에 대한 영역별 연구회의의 진행
 - 연구진의 생활예술 관련 이론과 정책환경,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정책전문가의 강의 진행
 - 국내 생활예술정책 전문가 및 기획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5) 연구결과에 대한 성남시 관계자 및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보고 및 공유(12월 예정)
- 연구결과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클럽과 공유함으로써 제단과의 공동협력 추진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
 - 성남시 관계자와 연구결과를 공유, 향후 성남시 지원 및 협조 내용에 대한 공동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II. 국내의 생활예술 정책 환경과 흐름

1. 국내 생활예술 정책 환경 및 흐름

1) 정부 생활예술 정책 총괄

- (1) 90년대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지역과 향유자가 중심화두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이후
 - 1993년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를 정책과제로 내세우며 주요정책기조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를 설정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문화정책이 소수의 전문예술가(창조계층)를 중점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공유보급하면서 정부의 정당성 확보 및 홍보, 중앙의 일방향적 가치 전달체계 성격을 지녔던 것을 생각하면 획기적인 변화임
 - 이 같은 정책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생활양식과 가치가 달라진 것을 반영함
- (2) 2000년대
-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용어는 2004년 발표된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의 「새예술정책」에서 먼저 찾을 수 있음
 - 당시 「새예술정책」의 4대 기본방향은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이었음
 - 이 중에서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의 추진과제가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 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로 설정됨
 - 당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대상은 일반 향수자층, 아마추어, 동호인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지원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 관람 등의 문화향유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음
 - 2008년 9월 정부는 ‘주요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에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함
 -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의 세 가지 원칙은 기존의 전문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안한 반면, 마지막 원칙인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은 시민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방향을 제안함

-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 정책의 세부 실천과제로는 첫째,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가정,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둘째,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 여건 마련이 설정되었음
- 이에 따라서, 생활 공감정책 중 문화부문 추진사업,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나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 도시환경과 연계된 공공미술정책 활성화 사업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속 예술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생활예술관련 문화정책의 확대를 가져왔음. 2004년 이후 생활예술 관련 문화정책을 정리하면 <표 2>과 같음

<div> <div><표 2></div> <div>생활예술관련 문화정책의 확대</div> </div>					
사업명		추진부처 (담당부서)	지원형태	시작 년도	주요지원내용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손회 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2004년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지역 문화원 육성사업 지원사업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4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6년	이주여성과 지역문화, 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기여
	세터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세터민과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 제공
	맹맹맹! 실버문화학교 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노인을 지역문화리더로 육성, 문화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프로그램의 거점센터로 특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2004년	폐교, 마을회관, 유흥공간 리노베이션,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 속의 지역 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	정보제공	2006년	생활권 내 시설·인력·프로그램간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8년	전통시장에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고 교진흥원)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9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이 지원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및 컨설팅 지원	2006년	지자체의 다양한 생활공간 개선사업의 발굴·지원
적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확충	2004년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지향
지역 문화 인력 양성	지역문화활동가 해외연수	문화부 (문화정책국)	인력양성	2006년	지역문화 기획·창작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문화현장 사례연구 등 교육 기회를 제공
지방대학 활동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지원	2005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
소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문화부 (공공미술위원회)	시설확충	2006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예술 창조로서 공익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 정부 부처 차원에서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은 참여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 2002년 10월 문화관광부 예술국에서 작성한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조건으로서 예술에 대한 시각이 소비적인 관점에서 생산적인 관점으로 바뀐 것을 토대로 예술창조의 주체로서 창조자(예술인), 매개자(기관·시설), 향수자(국민)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제시
-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서는 창조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수자를 예술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로 한정
- 아마추어 문학동아리의 문학행사 지원 등 ‘문학동인 등 문학 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 시민들의 생활권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생활권 공연장 활성화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생활예술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니었음
- 정부 차원에서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분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4년 12월에 작성된 「2005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임
- 시민을 지칭하는 ‘향수자’를 ‘향유자’로 변경하고, 정책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설정
- 이는 예술가가 창작한 예술의 결과를 소비하며 교육의 대상이라고 상정되었던 시민에게 더 많은 적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변화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들이 한계를 보이고,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보급은 확대되었으나 그 운영은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에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예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촉발됨
- 문화관광부는 주요 정책이행 과제로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계획함
- 이 중에서 특히 생활예술과 관련된 것이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인데,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 모두를 위한 중장기 예술향유정책 수립·추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특수계층 대상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설정
- 이는 예술향유자의 범위(연령과 계층 등)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에 걸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음
-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은 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져 2005년 12월에 작성된 「2006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2006년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채택됨

- 구체적인 정책이행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개인·기업·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 창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함
-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확립하며 세계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출을 유도하고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전년보다 시민들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예술생산과 주제적인 예술향유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음
- 그 다음 해인 2006년 10월에 작성된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에서는 예술 생태계의 기반과 구조를 강화한다는 기조 내에서 제시된 6대 정책 중 예술향수권 확대의 방향에서 ‘예술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이 제시되는데 여기에서 시민을 ‘생비자(프로슈머)’라고 언급
- 구체적인 과제로는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를 내용으로 함
- 이 중에서 ‘지역사회 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는 생활예술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에 작은 단위의 생활예술 활동이 부재함으로 인해 삶과 예술의 괴리가 있다는 진단과, 이에 대해 생활예술 영역의 강화를 통해 예술 생태계 순환구조를 활성화한다는 처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예술 동아리와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보 추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음
- 특히 생활예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문제진흥기금 사업의 생활예술 분야 지원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생활예술의 주요 요건 중 지역성과 시민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음
- 생활예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책이 확대되어가는 흐름은 ‘실용’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향성을 갖게 됨
- 문화예술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중앙위주의 지원행정체계에서 탈피,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역으로 사업을 이관하거나 지역 공동추진의 형태로 변경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지원의 4대 원칙이 새롭게 정립됨
- 원칙의 내용은 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② 사후 지원 체계 마련, ③ 간접 지원 사업 확대, ④ 생활 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임
- 이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생활예술은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개선방향 중 하나인 ‘생활 속의 예술’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결합하여 문화체험과 예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제안됨

-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공간지원을 연계하여 기악, 합창, 연극, 문학, 미술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과 시민이 제안한 예술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제안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이 제시됨
- 시민들에게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예술의 지역성 측면에서 부합하며 시민과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동일한 지역성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술가와 시민들의 공동작업이 단지 교육의 차원으로부터 간주된다는 점에서 시민성의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
-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실용을 지향하는 정부의 예술정책 기조 변화와 흐름을 반영
- 당시 정부는 예술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정부 출범 시 수립한 문화비전의 추진목표를 바탕으로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에서의 향유가능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09년 6월에 작성된 「2010년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에서는 예술지원 4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 속에서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의 원칙으로서 생활예술 지원정책이 추진됨
- 구체적인 정책내용으로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전통적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 예술 향유기회 확대, 전문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 참여 여건 마련이 제안됨

<표 3>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05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세부이행과제	- 국민 모두를 위한 중장기 예술향유정책 수립 및 추진 : 관객개발, 관객 지원 시스템 개발, 접근성 장애요인의 극복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특수계층 대상 문화교육 기회 확대
	특징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적극적 문화소비에 머무름
2006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지속
	정책사업명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세부이행과제	-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2007년	제	- 개인기업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 창출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특징	창작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고려 없음
	정책방향	예술 향수권 확대
	정책사업명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2009년	세부이행과제	-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
	특징	지역성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확대
2010년	세부이행과제	-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 : 예술강사 파견 및 공간지원과 연계한 동호회 활동 활성화 -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특징	예술가에 우선순 준 지역성과 시민성 강조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 예술지원 정책의 흐름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자치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의 전망

- 현재 생활예술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곳은 지역문화재단임
- 1995년부터 조성된 지방문제진흥기금과 지방자치 실시를 바탕으로 1997년 최초의 지자체 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됨
- 이후 2004년부터 각 지자체에 지역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다수는 2008년 이후에 설립되기 시작한
- 문화정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민선 5

- 기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수립을 통해 실질을 추구하는 정책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들을 중심으로 장기적 문화정책의 비전을 수립하려는 시도로서는 부천문화재단의 ‘창조도시 부천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고양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도시 기본조례’ 및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청주시가 추진 중인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이 이에 해당
- 아울러 실질을 추구하는 문화정책실행으로는 기존에 구축한 기반시설들을 메개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실행, 문화정책 개발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소를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한정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변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추구함
-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지역경제개발을 우선시하여 대단위 인프라 구축이나 큰 규모의 축제를 지향하는 것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민선 5기의 문화정책에서는 시민의 생활예술활동을 사적 취미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공공영역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소수 전문예술에서 일반시민들의 생활예술로 초점이 이동한 정책은 문화예술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복지, 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생활세계로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임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문화통화’ 사업, 인천문화재단의 ‘문화도시 공동체 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 부천문화재단의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임
- 민선 5기의 문화정책은 생활예술의 구성요소인 시민성, 장소성, 예술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문화정책이 시행될수록 생활예술의 정책적 속성도 점차 강화되어갈 것임

4) 마을공동체에서의 생활예술

- 특별한 사례로 주목할 것이 서울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성미산마을극장’의 사례임²⁾
- 성미산마을 생활예술 활동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성미산마을극장은 성미산마을과

- 이곳으로 입주한 네 개 시민단체-녹색교통, 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와의 합작품임
- 시민단체들이 성미산마을 측에 일정 공간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쓰겠다는 제안을 했고, 마침 마을 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극장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입주 건물의 지하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 2009년 2월부터 성미산마을극장으로 운영하게 된 것임
- 성미산마을극장은 성미산마을 내 각종 동호회들의 공연과 전시, 마을의 각종 행사, 영화나 연극 관람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 ‘마을 사람들이 그리 겁먹지 않아도 되는 무대’, ‘몇 달 연습하면 서볼 수 있는 무대’, ‘프로 예술가의 숨결을 코앞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무대’, ‘은 동네 사람들의 정겨운 놀이터’를 지향하는 성미산마을극장은 구체적으로 시민예술인들의 자발적 축제를 지원하고, 주민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이 되며, 전국 마을극장을 간 교류의 허브로, 그리고 전문예술단체의 창작센터로 기능하며, 주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운영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음³⁾

5) 기타 생활예술 관련 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함
- 보육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예술강사 지원, 군·특수 분야에 문화예술교육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별로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연간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센터와 문화의 집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서울문화재단은 2008년까지 시민의 직간접적 문제활동 기회확대 및 문화생활 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시민문제지원 사업을 7개 장르 및 축제사업으로 지원하여 왔고, 2009년에는 ‘생활 속 문화클럽 활동지원’, ‘시민이 만드는 예술사회 지원’,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의 세 분야로 나누어 ‘생활 속 예술지원사업’으로 확대함
-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작은 축제지원’, ‘다문화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2009년에는 일련의 사업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통합함
- 이밖에도 대전문화재단과 제주문화재단은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전

2) 성미산마을은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한 곳으로 1994년부터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방과 후 어린이집과 성미산학교 운영, 마포연대 활동 등을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지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음 특히 생활예술과 관련하여 이 마을공동체는 성미산마을극장과 마포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성미산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3) 특히 서울시의 향후 문화정책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연계된 생활예술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미산마을의 사례가 갖는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임. 아울러 마을공동체 생활예술에서 마을극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향후 서울시에 조성될 마을공동체와 마을극장의 상호 역할을 하는 등, 향후 성미산마을이 맡게 될 역할의 비중은 점차 커질 것임

남문화재단은 ‘시민예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가들과 동호인들을 지원해오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을 생활예술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특히 정책들이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활동과 얼마나 내밀하게 연결되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과 보완의 과제가 제기될 수 있음(표 4) 참조: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을 기준으로 생활예술 활동과 그에 대한 지원 사례를 비교)

<표 4>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 사례 비교

구분		시민주체의 문화공동체 활동		지역제도의 시민주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구분	성남 문화재단	성미산마을	인천시민 문화예술센터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관련 프로그램	문화클럽	시민 동아리	신나는 문화공간 '놀이터'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자발적인 예술동호회 조직 및 공간 운영		시민들의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동네 만들기	성미산마을 만들기	-	-	우리 동네 문화기우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민 중심으로 지역 환경과 생태를 지키고 여러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환경 바꾸기 지원		
네트 워크	시민 주체 양성	시민자치	시민자치	-	-	시민문화 컨설팅사업
		필요에 따라 자발적 학습과 기획수행을 통해 시민인력 구성		지역 문화예술행사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 통화	-	문화바람	-	-	-
		별도의 통화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수송자 운동 진행		-	-	-
사회 공헌	시민 축제	동네아 놀자	동아리 축제	-	시민축제 지원사업	-
		시민들이 참가하고 기획, 운영하는 지역 축제 운영		시민 예술동호회의 축제 지원		
	지역 공헌	지역사회기증 물품 서비스	-	-	-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봉사는 아니지만 사회기증 물품 서비스		-		
	-	성미산 마을극장	이트홀 '소통'	-	-	-
		시민자치의 마을 극장 운영	-	-	-	-
		미포연대	-	-	-	-
		문화정책은 아니지만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행정감시 체계 운영		-		

* 출처: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성남문화재단, 2010

2. 해외 생활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1) 해외 사례

(1) 북미 사례

- 미국과 캐나다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생활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생활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정부의 소관임
- 이 경우도 직접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미국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지역의 학교와 비영리기관이 지역의 생활예술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제언을 수행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컬럼비아대학 시카고문화정책센터(The Chicago center for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나 실리콘밸리 문화협회(Cultural Initiatives Silicon Valley)와 같은 기관들은 각각 시카고와 실리콘밸리 지역 내의 생활예술단체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시행함

(2) 유럽 사례

① 영국

- 영국은 동호회 활동이 전국적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정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임
- 약 200개의 전국적인 전문조직들이 생겨났는데-영국브라스밴드연맹, 레이스길드, 전국합창단협회, 전국오페라연극협회, 전국 장식 및 순수 미술협회 등-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안정적 재원이 없는 소규모의 클럽들로서 소식지 발간과 컨퍼런스 및 기타 이벤트 개최가 주요활동임
- 멤버로 가입된 단체들에게 훈련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무소와 직원을 갖춘 곳도 있음
- 영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실상 전무
- 하지만 최근에 와서 예술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참여’와 ‘타월함’이 포함되어 VAN(Voluntary Arts Network)과 기타 자발적 예술에 대한 전국 상회기관들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생활예술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수입

- 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함
- 북권기금 등 추가적인 재정 조달이 필요할 경우 재원조성을 하기도 하지만, 20세기 후반 지방정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은 이후 지난 20년간 이런 현상은 급격히 줄었음
- 그러나, 자발적 예술단체들에게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아동보호, 라이선스, 보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가 등장하면서 자발적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워짐
- 단체 소유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음
- 많은 단체들이 학교, 교회, 지역센터, 아트센터, 극장, 갤러리를 빌려서 정기 연습, 워크숍, 리허설, 공연, 전시회를 함
- 지난 2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변하면서 대관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렸음

② 독일

-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니만큼 생활예술동호회도 각 주별로 활성화되어 있고 각 주별 동호회가 다시금 연방 차원에서 묶여 지원 및 관리됨
- 민간네트워크보다는 동호회 콘텐츠별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음
- 음악동호회의 경우 ‘Musikrat(음악위원회, 일종의 사단법인 음악단체)’가 있어 각 주별 아마추어 음악동호회로부터 회비를 걷고, 공식 기구로서 대표성을 띠고 각 주별 아마추어 음악동호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음
- 독일사회문화센터의 조직 및 관리
- 500여 곳의 사회문화센터는 독일어로 ‘공익협회(Gemeinnütziger Verein)’라는 법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의미함
- 이런 조직으로 인정받으면 지역의회사나 지역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함
-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의 운영은 '수평구조'로 이루어짐
- 명명할당 방식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
- 운영체원은 주로 지역의회 및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음. 연방정부 지원은 많지 않음

③ 불가리아

- 있도록 지원
- 아르치와 민중의집⁴⁾
- 지역에서 아르치는 60년대 초반부터 춤,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주민의 문화, 레크레이션 요구를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
- 민중의 집에서 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다양한 서클이 결성되고 영화상영회, 콘서트, 리사이틀, 문화 문제 토론회 등이 개최해 옴. 당시에는 영화관이나 극장 등 문화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의 집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교회의 문화 활동 외 주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었으며, 다양한 지역 문화 활동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됨
- 오늘날 이탈리아의 민중의 집은 대부분 아르치의 클럽으로 가입해 있어, 민중의 집 회원이 되면 동시에 아르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됨. 아르치 지역 조직과 여기 소속된 여러 클럽들이 민중의 집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과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 조직구성
- 아르치는 조직 전체와 전국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내셔널 조직(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음)과 주마다 구성된 지역조직, 그보다 더 작은 지역 행정단위 조직 이상 3개 단위의 지역 체제로 구성되며 민중의 집과 지역 문화 활동 단체들은 각 행정단위의 아르치 조직에 소속되어 있음
- 아르치에는 지역 조직 외에도 부문 연합 조직들도 소속되어 있음. 1980년 결성된 동성애자 문화 인권 조직인 아르치게이(Arcigay), 농업과 숲을 비롯한 환경 보존 운동을 벌이는 ARCI CACCIA, 80년대 페스트푸드 확산에 반대하여 이탈리아 식문화와 건강한 음식을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조직된 슬로우 푸드 등이 있음
- 또다른 부문연합 조직인 UISP(Unione Italiana Sport Per tutti)는 건강한 삶, 사회적 삶을 위한 시민의 운동에 대한 권리 확대를 목표로 하며, 야구부터 자동차 레이싱까지 모든 종류의 스포츠 클럽들을 지역, 주, 중앙 차원에서 네트워킹 하고 있는 단체임
- 아르치 전국연합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 행사 예시
- 음악 페스티벌(Festa della Musica): 매년 여름에 수백 여개의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전시 등이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
- 유럽과 지중해 청년 아티스트 비엔날레(BJCEM, Biennale des jeunes créateurs de l'Europe et de la Méditerranée): 아르치는 이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연합조직의 일원으로, 유럽과 지중해 인근 국가의 청년 아티스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아

- 취탈리쉬테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독립네트워크로 세속 예술과 독서공간을 사회의 중심으로 여긴 지역주민들과 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음

④ 이탈리아 아르치 ARCI (Associazione Ricreativa e Culturale Italiana)

- 역사
- 1957년 5월 25일 피렌체에서 결성된 이탈리아의 풀뿌리 문화 테크레이션 활동의 연합 조직.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상호부조 및 연대 경험, 즉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답하고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조직들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
-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과 이탈리아 사회당의 영향 하에 있는 클럽, 상호부조조합(SMS), 민중의 집 등이 주축이 되었고, 레지스탕스기로부터 전후에 걸쳐서 결성된 다양한 민주적 문화 클럽의 전국적 결집체로서 결성됨
- 아르치는 오늘날 강령에도 파시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유래된 민주적 가치, 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사회, 문화, 여성, 이주인에 관한 모든 UN 협약을 참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가치에 기초한 지역, 국가 차원의 활동은 물론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규모
- 2008년 현재 회원은 1,150,393명이며 5,577개의 지역별 클럽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 클럽들은 문화(영화, 문학, 음악, 춤), 여행, 인권, 사회 참여, 공공 서비스, 국제 연대 활동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룸
- 주요 활동 영역
- 아르치는 다양한 문화활동, 문화 생산과 소비공간, 청년 창작 워크숍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문화에 대한 권리,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아이디어와 지식, 문화적 다양성의 순환을 촉진
- 전쟁, 부정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시민 저항을 지원, 반전평화 국제 네트워크 결성 등
- 지역 클럽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책 개선, 청소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중독, 취약계층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등 복지 확대와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시민권과 권리,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 이주민 보호, 상담, 생활 안내, 언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시민들이 질 높고 상업화되지 않은 다양한 여가, 테크레이션 활동 기회를 누릴 수

- 있도록 지원
- 티스트들의 작품을 소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음
- 아르치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의 개최 시기에 맞춰 지역 및 전국 조직에서 매해 세계사회포럼에서 다루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토론과 행사 진행

⑤ 스웨덴 민중의 집과 민중의 집 연합회

- 민중의집 역사
- 19세기 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내 정치조직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자신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음. 이런 요구가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던 것에 반해 노동자들은 기존의 공간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음. 노동자들 사이에서 환기될 수 있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주들은 공개적인 회합을 금지하기도 했음
- 그러던 중 스웨덴 남부지방에서 노동자들은 직접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다른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회합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함. 이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음. 이러한 개념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평등과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 민중의 집 공사 기금은 협력적인 기업, 은행 대출, 다양한 형태의 기부, 자원봉사 노동 등에 의해 마련되었음
- 스웨덴의 첫 민중의 집은 1890년 스웨덴 남동부의 크리스티안스타드(Kristianstad)에 만들어졌고, 첫 번째 민중 공원은 1893년 말뫼에 세워졌음
- 현황
- 스웨덴 전역에 533개의 민중의집이 있으며, 연간 5천만명 정도가 민중의집을 방문하고 있음
- 민중의집은 125개의 민중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사회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열린 공간이며, 특히 이민자, 여성, 실업자 등 소수자 집단이 지지를 얻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 회합을 열 수 있는 장소로서 결국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가치 하에 운영됨
- 민중의집 연합회
- 민중의집 연합회에는 125개 민중공원과 533개 민중의 집이 있음
- 연합회는 12개의 지역 지부로 나뉘지며, 전국에 걸쳐 약 220개의 극장이 각 회원조직의 민중의 집 내지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음
- 1905년과 1932년 각각 민중의 집의 전국적 연합을 지향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각각의 이념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운영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음. 1905년에

4) 현재에도 이탈리아 전역에 약1천500여개가 존재하고 있는 민중의집은 100년 동안 이탈리아 지역운동의 상징이었음. 아르치와 민중의집은 초기부터 긴밀하게 결합되어 주민들이 생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 만들어진 Folkparkernas Centralorganisation(민중공원 중앙조직), 1932년에 만들어진 Folks Husföreningarnas Riksorganisation(전국 민중의 집 연합조직). 이 두 조직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연합회임
- 전국 민중의 집 민중공원 연합회(Folkets Hus och Parker organisation, FHP)는 2000년 1월에 출범하였음
- 주요 활동
 - 민중의 집 연합회는 놀이 공원, 동물원, 옥외 극장, 식당, 콘서트 홀, 덴스장, 컨퍼런스 센터와 아트 갤러리 등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조직과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음. 꼭 민중의 집이나 민중공원 형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에게 가입을 개방하고 있음
 - 이 연합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회원들을 지원함. 민중의 집 건물과 부동산, 홍보,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조언과 교육 / 극장, 전시를 위한 연극, 뮤지컬, 영화 공급 등을 하고 있음
 -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음
 - 특별히 주는 협약: 민중의 집 연합회는 각 회원 조직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맺음. 이 계약 덕분에 회원 조직들은 보험, 통신, 임금 지급 시스템, 회계 프로그램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고용주 조직: 민중의 집 연합회는 특별히 각 회원조직 고용주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종사자들과 단체협약을 맺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연합회는 고용주 조직에 협상과 노사 관계에 대해 지원함
 - 재정적 조언: 경영 자문, 컨설팅, 그 외 다양한 재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제공
 - 영화 개발: 회원조직들과의 협력과 토론을 통해 영화 상영을 위한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영화와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과정을 제공. 또한 질 높은 영화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노력 중. 매년 8월에 연합회는 Films Day를 개최함
 - 디지털 하우스: 영화 회사, TV 회사, 오페라 하우스, 극장 등과 협상을 진행하여 회원 조직들이 각 극장에서 오페라,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을 상영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 연합회는 유럽에서 최초의 디지털 시네마 배급 구조를 만들어, 세계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HD 화질의 오페라를 각 조직 내 극장에서 라이브로 상영
 - 예술: 회원 조직들은 예술 작품들에 대한 조언, 훈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합회가 가진 예술 작품 콜렉션으로부터 무료로 예술품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연합회 차원에서 매년 순회 전하기도 개최. 매년 봄에는 회원들을 위한 예술 컨퍼런스를 개최함 (Art Days)

- 문화 프로그램 제공: 회원 조직들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양질의 쇼, 팝/락 콘서트, 그 외 뮤직 소프트웨어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 Book Day 행사

각 분야별 프로그램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영화, 예술, 청년문화 등 각 분야별 주제에 대한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활동의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중 다양하게 열림. 각각 '책의 날', '청년문화의 날', '예술의 날', '영화의 날' 등이 고유한 기획을 가지고 컨퍼런스, 문화행사, 리셉션 등을 배치 - 예컨대 청년문화의 날(Ungkulturdagarna, UKD) 행사는 특별히 청년 조직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부터 총 14번 개최했음. 주로 국립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7,0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영화도 보고 정치 토론도 하고, 춤도 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많은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새로 일자리를 얻기도 했다고함

- 조직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합 포럼이나 기타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회원 조직들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과 경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음. 조직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Arrangörshögskolan(조직가 학교)라는 정규 프로그램 운영

조직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조직 활동가들을 위한 맞춤형 학교로, 2008년부터 운영하여 총 200여명의 활동가들을 배출했다고 함. 특별히 회원 조직 활동가 및 ABF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한 해 동안 모두 5번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며, 사회적 기업의 운영, 문화 기획, 지역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센터 판점과 다양성, 청년 문화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 - 강연 뿐 아니라 현장 답사, 워크샵, 실습 프로그램 등도 진행, 지역 ABF 지부를 원거리 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 - 2011년 조직가 학교는 10월 5일부터 4박 5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2년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친 회의와 답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임. 식사 및 숙박비 포함하여 25,000 크로나 상당의 비용을 5,000 크로나에 제공

- 컨퍼런스 개발: 각종 회의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음. 3년에 한번 총회 개최
- 부동산 이슈: 자산 및 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 조언. 공사나 리모델링 등을 할 때 회원조직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그 외 부동산 이슈

- 에 대한 다양한 협상 등 지원
- 지역 조직: 사업 개발과 민중의 집에 초점을 둔 사업 개발가(Business developer)가 각 지역 조직에 배치되어 있음. 이들은 각 회원 조직과 중앙 조직을 연결함
- 공공기관과의 관계: 문화예술부, 영화 기관, 국회 문화 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청원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회원조직 외 여러 지역 조직들과 협력 하여 각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
- 커뮤니케이션: 각 회원 조직 아이디어 연합회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스터, 사진, 광고 등 마케팅에 필요한 것, 그 외 각종 정보나 프로그램들을 다운 받을 수 있음
- 협력과 협동: 연합회는 항상 다른 중앙·지역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회원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 대표적인 파트너는 ABF, Ungkulturdagarna(Youth Culture Days), Hyresgästföreningen(임차인 연합), SABO(스웨덴 공공임대주택 기업 연합회-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300여개 기업 조직의 연합조직), 국립극장, Unga Teaternätet(청년 영화 네트워크) 등임
- 조직 운영
 - 총회: 3년에 한번 개최하는 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 각 회원 조직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이 참여하여 민중의 집의 비전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하고 이사회 선출. 마지막 총회는 지난 2009년 10월에 1박 2인 동안 열렸고, 2010-2012년 3개년 간의 비전을 결정
 - 이사회: 총회 사이에 개최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 때 결정한 계획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보통 각 지역 민중의 집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대표도 여기서 선출
 -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들을 준비하고 기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 민중의 집 연합회 자회사
 - 민중의집 연합회는 3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Framtidens Mötesplats (Future Meeting Place)
 - 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극장을 소유, 관리하는 기업으로 4개의 극장은 말보의 Spegein(거울), 예테보리의 Roy, 스톡홀름의 Rio, 헬싱보리의 Röda Kvarn(red mill). 이 사업은 스웨덴 영화 시장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주체로서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디지털 프로젝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함. 이 기업의 핵심은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고 디지털 개발의 선구자가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회합 장소'라는 이 기업의 명칭은 다양한 경험 이 모여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특별한 회합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 이 기업

- 은 지역 영화 제작자나 축제 기획자들과의 협력,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극장 그 이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Nojesvaror (Amusement Goods, 놀이 기구)
 - 이 자회사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놀이 공원과 동물원, 컨벤션 센터, 식당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각종 놀이 기구나 회의장 가구 등을 만들어싼 값에 공급하며 수출도 하고 있음
- Folkparkernas Programbolag (민중공원 소프트웨어 회사)
 - 문화 엔터테인먼트 상품 및 행사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각종 공연 및 행사 예매, 화상회의나 각종 컨퍼런스 및 케이터링 지원 등
- 연합회 최근의 비전 (2010~2012 액션 플랜 - 4가지 개발 영역)
 -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
 - 지역-중앙, 각 회원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고와 기획 확대하기
 - 각종 회의, 문화 활동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연합회의 각종 장치와 활동들이 로컬, 지역, 중앙 조직의 플랫폼이 되어야 함
- 모두를 위한 공간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디자인과 시설 등 환경 개선
 - 새로운 집단의 접근성 확대: 가난한 사람들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 만들기
 - 스웨덴 민주주의 인프라의 주요한 일부가 되기 위한 노력
- 변화와 발전의 조화
 - 보다 경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즐겁고 전문적이고 보다 목표 지향적인 방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 참여, 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기
 - 자원 동원능력 배가
- 함께 일하기
 - 지역 기반 대중운동의 성장 지원
 - 중앙 및 각 지역의 여러 시민운동단체, 비영리 조직들과의 협력 수준 강화

⑥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ABF (Arbetarnas bildningsförbund, The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 개요

- ABF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시민교육 연합
- 연간 75만명이 ABF 스터디 서클과 교육과정에 참여, 약 70만명이 ABF가 개최하는 강연에 참여, 음악회나 극장 등에 오는 인원은 2백만명 이상
- 스터디 서클은 약 3만2천개.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음. 영어,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 영화 만들기 등
 - o 가치 지향
- ABF의 사회적 계급에 대한 주목은 1912년 협회가 설립되었을 때 보다 오늘날 덜 중요해졌음
- ABF의 목적은 사회 모든 영역의 민주주의를 강화·심화하는 것. 모든 사람은 개인적 집단적 해방을 근본적인 미션으로 삼고 있음. 이념적 운동임을 명확히 표방하고 있음
- 민주주의, 다양성, 정의, 평등은 ABF 운영의 기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주요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지역과 세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스터디 서클을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 방법은 가장 저렴하고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영감,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알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함. 자신의 작업장 내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 이것이 ABF가 노동조합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
- 문화는 영감을 주며 사람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함. 이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우리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며 이것이 ABF가 문화를 수용하는 이유
- 연대에는 경계가 없다는 관점. ABF가 국제 교육과 다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보 캠페인에 중점을 두는 이유
-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만들 힘이 없음. 건강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무관해야 하며 ABF가 건강 이슈에 초점을 두는 있음
-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높은(accessible)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 이를 위해 ABF가 이주민과 장애인, 노년층을 위한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 있음
-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곳에서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이것이 ABF가 스웨덴 전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이유이며 가장 불행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 ABF의 10가지 과제

- 계급 사회 폐지
- 민주주의 발전
- 모든 사람들의 차이에 기반한 평등한 권리
- 대중운동 강화
- 비영리 부문의 발전
- 모두를 위한 문화
- 페다고지 차원의 과제: 교수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대중운동과 리더들의 발전,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교육 방법 개발 등
- 평생교육
- 건강 및 만족스러운 일터
- 전 지구적 과제: 시장 주도의 지구화 반대, 글로벌 민주주의와 지구화의 민주적 전환, 노동운동의 발전, 국제 연대와 정의로운 운동을 창출하는 새로운 저항에 참여하고 배우기
- o 역사
 - 사민당, LO, 협동조합(Kooperativa Förbundet)이 주축이 되어 1912년 11월 16일 설립
 -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널리 출현한 시기, 이 중 3가지 영향력 있는 운동은 노동운동, 급주(절주) 운동⁵⁾, 자유교회운동(frikyrkorörelsen)으로, 이는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주요한 촉매가 되었음. 이러한 사회운동 안에서 대안적인 교육의 전통, 시민교육이 만들어짐
 - 시민교육은 참여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육이자 지식이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교육임. 이 아이디어는 각 운동의 회원들이 자신의 상황, 더 널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음
 - 시민교육은 당시 공교육 체계가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었고, 인구의 대다수가 6년의 초등교육 이상으로 교육을 받는데서 배제되었던 현실에서 변화를 가져옴. 시민들은 글을 읽고 토론하고 그전까지 소수만 갖고 있던 지식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실제 필요에 따른 교육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
 - ABF가 만들어진 1912년은 이미 시민교육의 전통이 짙다고 있던 시절임. 설립 당시 ABF의 아이디어는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 진행되던 훈련 활동을 기획·조정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음. 초기 교육 활동은 순회 강연을 포함한 강의를 조직하거나 180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공공 도서관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이

5) 스웨덴에서 급주(절주) 문제는 보수/진보할 것 없이 당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고 함.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별이 뜨는 날이 연중 며칠되지 않는 우월한 기후에, 산업화 초기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를 반복하는 생활을 했다고. 노동운동 초기 조직화에 이러한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 문화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음. 그러던 중 1907년 의회가 책을 구입하고 공공 도서관에 제공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중앙 조직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ABF가 점차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 초창기에는 스터디 서클이 시민교육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다가, 2차 대전 동안 크게 확산되었음. 당시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지고 정착하면서 갖게 된 여유 시간을 공부에 많이 투자했고, 스터디 서클의 성장과 함께 ABF의 규모도 점차 커졌음
- 1948년 정부가 ABF와 같은 교육 협회, 특히 서클이나 연합 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면서 50년대 강연은 쇠퇴하고 스터디 서클이 더욱 성장하였음. 동시에 ABF에서 운영하던 도서관들도 지자체로 이전되어 70년대 ABF 도서관은 모두 지자체로 넘어감. 이 시기에는 또한 음악 관련 활동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지역 음악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다른 문화 활동들도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함. 교육 사업은 60~7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오늘날에는 강연도 다시 ABF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되었음
- 1912년 이래 스웨덴은 많이 변화하여 민주주의가 사회에 발자취를 남겼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음.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멈출 수 없음. ABF는 여전히 계급적 차이를 줄이고, 문화적 배제, 거주하는 장소나 경제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되찾는 것이라는 확신이 ABF 활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
- 2012년에 100주년. 스톡홀름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2012년 6월 11~17일까지 진행한다고. 테마는 “Society as it is and so it should be” 100주년 역사를 담은 기념 영화도 제작 중
 - o 핵심전략 : 스터디 서클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 훈련장(a practical workshop in democracy)
- 스터디 서클은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룹, 이는 ABF 활동의 토대이자 ABF의 성장과 함께 확립되어 온 시민교육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음. 스웨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윌로프 팔메 전 총리는 스웨덴을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스웨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짐⁶⁾
- 스터디 서클이라는 아이디어는 “스터디 서클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스카 올손(Oscar Olsson)⁷⁾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교육은 모든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와 평

- 등에 기초한다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 오스카 올손이 이상적인 형태로 여겼던 것은 동료 서클(peer circle)로, 몇 년간 규칙적으로 만나 토론과 학습을 하고 함께 세습계 사회화 해나가는 형태의 서클이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클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고 좀 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서클과 특정 주제를 다루는 서클이 분화된 것이 지금의 형태
- 누구든 스터디 서클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그룹에 가장 적합한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도 만날 수 있음. 스터디 서클은 스웨덴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 중 하나인 스웨덴 대중운동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음. 민주주의는 어떤 사안을 다시 분석하려 하고 잘못된 일의 미문을 제기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함. 이러한 용기와 보장(security)은 ABF로 상징되는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소규모 집단에서 발전될 수 있음
-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해, 큰 그림을 보는 관점과 과정을 필요로 함. 대화와 행동은 스터디 서클 방식의 중요한 일부분임. 대화는 여전히 연결을 창출하고 전체를 이해하며, 비판적 성향을 발전시키는 가장 탁월한 수단
- 스터디 서클에 기반한 학습 및 시민교육의 독특한 조건과 방식은 실천적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훈련임. 8-12명 규모의 그룹은 집단적 학습에 가장 적합하다고 봄.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페이스와 장점을 유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임. 보통 10주 동안(최소 3주) 매주 한번 정도 모임을 가짐
- 스터디 그룹은 사전 지식이나 자격시험 같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유의사에 따라 스터디 서클을 선택. 참여자들은 서클 내에서 공부할 내용과 운영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 후, 함께 새로운 지식, 기술, 관점을 모색. 스터디 서클 리더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며,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모든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고 있음
 -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터디 서클을 만들 수 있고 ABF 각 단위 조직들은 새로 조직하길 원하는 사람을 도와 함께할 사람을 모아주고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줌
 - o 각 수준별 스터디 서클 리더/조력자(facilitator) 훈련
 - 리더나 조력자는 스터디 서클의 핵심적인 인물. 때문에 ABF는 이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여러 개 수준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이 훈련 과정은 대화 입문부터

원으로 활동하기도 함

6) 윌로프 팔메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이다. 학습을 통해 각 세대들은 스스로 비판적 분석을 훈련해 왔고, 그 결과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함께 일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다”

7) 20세기 초에 활동한 교수이자 사민당 당원이며, 공공교육과 급주 운동에 앞장선 인물. 1902년 Lund라는 지역에 있을 때 스웨덴 최초의 스터디 서클을 조직한 사람으로 “스터디 서클의 아버지”라 불림. 1913~1948년 스웨덴 의회 상원의

- 대학 수준의 시민교육 방법론 교육까지를 커버하고 있음
- 스터디 서클 리더 중 일부는 ABF에 고용되어 매년 몇 개의 서클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리더들은 ABF나 파트너 조직의 회원이거나 자신이 주도하여 시작한 서클의 일원으로, 여가 시간을 쪼개어 활동하는 사람들임. 현재 스터디 서클의 일원인 사람이나 또는 자신이 관심있는 새로운 주제로 스터디 서클을 만들고 싶은 사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development program)의 구성: 오리엔테이션(3시간, ABF에 대해 배우기, 스터디 서클은 무엇인가 등을 배움), 기초 훈련(스터디 서클 형태를 기준으로 약 25시간), 연속 훈련(약 80시간), 문화 교육 및 리포트 쓰기, 대학 수준의 시민교육 방법론
- 모든 리더/조력자를 위한 일반적인 개발 프로그램 외에 특정 주제별 과정, 특정 타깃 그룹별 과정들, 새로운 교재 소개 과정 등이 있음
- 조직 체계
 - 지자체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 지역별 체계 + 회원조직 및 협력조직과의 협력에 기반한 체계
 - 지역 조직
 - 로컬 지부(local level, branch): 일반 대중 및 회원·협력조직의 회원들과 스터디 서클 조직 & 강연, 토론회, 문화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 개최
 - 지역 지부(regional level, district): 스터디 서클 리더와 조력자, 조직가들에 대한 교육 실시
 - 연합조직(Federation): 회원조직 및 협력조직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각 단위 ABF 발전을 위한 활동, 문화, 건강, 노조, 장애, 다양성, 정치 및 국제 이슈를 다룸
- 회원조직/협력조직
 - 협력하는 조직은 회원조직과 협력조직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60개, 후자가 57개임. 이들 조직의 교육 및 교수법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강연이나 교육 활동 기획, 조직 문화 형성 등을 돕고 있음
 - 회원조직과 협력조직의 차이: 회원조직은 회원수가 3천명 이상이며 전국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이른바 전국조직) ABF의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이며, 해당 조직의 대표자가 ABF 각 지역 및 중앙조직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직은 협력에 관한 협력을 맺고 ABF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협력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해당 활동 지역 ABF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회원조직: 노조, 장애인 단체, 각 국가별 이민자 단체, 협동조합, 은퇴자 모임, 정

- 당, 문화 단체 등 다양. 협력조직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나 규모가 작거나 등등인 듯
- 재정
 - ABF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지원금 / 참여자와 회원조직이 내는 비용으로 충당됨. ABF 중앙 조직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이는 활동 범위에 따라 각 지역 지부에 배분됨
 - 정부는 몇 가지 이유로 시민교육을 지원함 (스웨덴 정부, 성인교육 정부지원법에 따른 지원 목적인 듯)
 -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사회 발전에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촉진
 - 민주주의의 강화와 발전
 -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참여를 증대, 문화적 경험과 개인의 창의성을 배가
 -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정부의 주요 지원 대상은 이주민, 장애인, 실업자 등임
- 국제 연대 활동
 - 100여년에 이르는 시민교육의 경험을 다른 나라의 조직들과 나누고자 함.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도 하고 자매 결연을 맺기도 하고, 그냥 영감만 제공하기도 하는 등 방식은 다양함
 - 국제 협력: 다른 나라의 지역 조직들과 시민교육 제공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이 사업들의 목표는 파트너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볼리비아, 우루과이, 페루 등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바 있음
 - 국제 네트워크: 국제노동자교육협회(IFWE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s), 그 유럽 지부인 Euro-WEA, 북유럽 지부인 the Nordic WEA 등의 회원으로 활동

(3) 일본 사례

- 일본의 경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생활예술가들의 전국 축제인 ‘국민문화제’가 1986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 하에 수행되어 왔다는 점
- 이 축제는 매년 다른 지방정부가 주최하고 중앙정부, 지역의 기업,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
- 일본의 지역문화에서는 지방정부 측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태도뿐

아니라 “가능한 한 현이나 국가 또는 시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자”라는 문화 예술단체의 태도도 엿볼 수 있음

2) 시사점

(1)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협력

-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문화예술인간의 협업은 어느 한 집단의 자체 변화로 인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전문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탈중심적, 지역자치적 구조 형성이 아마추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정-가 수반될 때 비로소 가능해짐

(2) 공공재원의 축소에 따른 자생성 확보 및 합리적 지원방식 모색

- 최근 경향은 정부의 직접 지원은 줄어드는 경향임
- 공적 기금은 생활예술 육성에 있어 유용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으나 자칫 잘못된 운용될 경우 단체를 와해시키는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오랜 생활예술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음
- 한국의 생활예술 정책이 해외의 생활예술 지원 방식을 택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장기적 안목으로 생활예술 단체의 현황을 치밀하게 파악하는 일이며 파악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한국적 방식의 생활예술 지원책을 구축하는 일일 것임

<표 5> 해외 생활예술의 역사적 변화

국가	생활예술의 역사적 변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도시 노동자 및 이민자 중심으로 냉전 프로젝트 이전까지 활발하던 상당수의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이 50년대 동화주의자들의 문화정책 방향 수정으로 위축 ● 60년대 이후 대량생산된 문화 상품으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지역 사회의 국가 문화정책성과 지역의 참여적 문화 활동을 위해, 20세기 중반 민권 운동이 발전하면서 지역 중심의 자발적 그룹이 등장 ● “캐네기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공립학교 및 도서관 건설에서 시립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 ● 그러나 예술 분야에서는 70년대 이후 주요 공공예술기관이 예술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 아마추어 예술 참여를 전문 예술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 아마추어 예술 행위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사라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층들은 활발한 예술 활동을 가장 혹은 사고 모인에서 배우고 노동자들은 전통 음악이나 무용, 특히 극단 연사를 이어오는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으로 아마추어 음악 활동을 보이면 19세기 이후 서양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지역 모임이 꾸준히 지속 ● 젊은이들의 참여 부족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13,000개의 정규 모임에 170만 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 유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의 사회문화센터는 60년대 말 개발되기 시작하여 70-80년대에 서독 전역으로 전파.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참여, 사회의 개방과 자유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 되고 대부분 대학생 및 청년 계층에 의해 주도 ● 동독 ‘문화의 집’은 공산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서독식 사회문화센터로 변화 ●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공식’ 문화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민중의 집은 1967년 결성된 풀뿌리 문화 레크레이션활동의 연합 조직 ● 민주적 가치, 공화국 헌법 정신에 기초. 다양한 민주적 문화클럽의 전국 결집체로 운영 ● 2008년을 기준으로 1,150,393명이며 5,577개의 지역별 클럽이 조직 ● 지역 클럽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책 개선, 청소년 이동을 위한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중독, 취약계층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등 복지 확대와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시민권과 권리,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 이주민 보호, 상담, 생활 안내, 언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0년 처음 설립된 스웨덴 민중의 집은 스웨덴 전역에 533개의 민중의집이 있으며, 연간 5천만명 정도가 민중의집을 방문하고 있음. 강력한 조합주의 전통이 배경 ● 민중의 집 연합회는 놀이 공원, 동물원, 육의 극장, 식당, 콘서트 홀, 댄스장, 컨퍼런스 센터와 아트 갤러리 등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조직과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음 ● 꼭 민중의 집이나 민중공원 형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에게 기금을 개방하고 있음 ● 조직기회교를 운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제전에 건물 수 있는 규모의 아마추어 문화예술축제인 ‘국민문화제’가 86년 문화청 장관에 의해 시작 (국민체육단체는 46년 시작됨) ● 2009년까지 24회 개최되었고 4년 전부터 준비 시작하는 국가적 행사 ● 축제 기간의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 자체를 중시하여 이를 ‘문화창조’라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기업, 개인과의 연계를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어 있음.

<표 6> 해외 생활예술 지원정책 및 사회적 위치

국가	생활예술 지원정책	생활예술 사회적 위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음. 지역정부의 지원 받으며 직접 지원보다 지역 비영리단체 통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을. 지역마다 예술동호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음. 예술동호회는 전문예술가를 배출하는 산실로도 기능해왔음. ● 최근 들어 동호회 활동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임. NEA는 주로 전문 예술기관이나 전문예술가를 지원하며 주로 공동체예술을 지원함. ● NEA: 2011년 보고서 「The Arts and Human Development」는 예술과 자기개발, 삶의 질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2011년부터 OUR TOWN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공간 재생, 주민 참여 등 매우 포괄적인 기획을 지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후반 지방 정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급격히 줄었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무 최근 몇 년 사이 VAN 과 같은 생활예술 상위 기관들에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작됨. VAN 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로부터 정기적인 지원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생활예술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전문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중요 분야이기도 함. 그러나 생활예술 단체와 시민/지역 활동 사이의 연계는 약함. 그림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술 활동은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의회나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받고 중앙 정부의 지원은 거의 받지 않음(독일은 문화 분야를 지방 정부에 거의 이관하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전문예술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는 큰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규모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는 편 전문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첫 무대역할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제 중심, 그러나 전국단위의 조직 경우 정부가 지원 또한, 지역단위 조직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공간 및 일부사업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문화예술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현재에도 이탈리아 전역에 약 천500여개가 존재하고 있는 민중악집은 100년 동안 이탈리아 지역운동의 상징임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조직 운영 중심, 지방정부가 공간 및 일부 사업비를 보조 강력한 조합주의 전통에 따라 노조들과 연대활동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활동 외 지역사회와 이주민, 소수자, 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활동과 연계가 강함 공공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의 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Ⅲ.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

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개요

1) 사랑방문화클럽의 목적 및 활동⁹⁾

- 사랑방문화클럽 : 성남시를 소재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사랑방 문화클럽 I club sarangbang



사랑방 문화클럽 I club sarangbang

<그림 2> 사랑방문화클럽 심벌 및 로고

- 활동 목적
 -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클럽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 활동 내용
 -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및 총회
 -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1월) 및 활동보고회(12월)
 - 문화공헌프로젝트(2008 ~ 2011) 및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2012 ~ 2013)
 - 사랑방클럽 축제(9월 또는 10월)
 - ※ 2012년부터 사랑방클럽축제와 함께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추진214
 - 기타 지역사회 참여활동(봉사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내용

(1) 활동예산 지원

- 성남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2007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지원해 옴

8)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정관> 참조(http://www.snart.or.kr, 사랑방문화클럽 자료실)

<표 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예산 추이(2007 ~ 2013)

연도	예산액(천원)	지원내용	지원방식 ¹⁰⁾
2007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럽 공모지원 사랑방클럽축제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자기 모임 등) 	(37)개별 클럽 활동지원 (직접 지원)
2008	34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공헌활동 지원 사랑방클럽축제(장르별 축제) 	팀별 지원 (간접 지원)
2009	318,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자기 모임 등) 	
2010	241,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럽연합활동(공연·사랑방오페스트라, 전시·사랑방전시유닛) 	
2011	251,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 공간 지원(사랑방연습실·양상블씨어터 3층, 사랑방아트홀·큐브플라자 3층) 	
2012	219,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랑방클럽축제(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자기 모임 등) 연습공간지원(사랑방연습실·양상블씨어터 3층) 	
2013	214,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랑방클럽축제(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클럽자기 모임 등) 연습공간지원(사랑방연습실, 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시민화관) 	

- 사랑방문화클럽은 2008년부터 일반시민 및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공헌활동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재단은 이를 지원하고 있음
- 공연, 시장, 수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소외층 대상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실행

<표 8>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중 문화공헌 활동 지원예산 추이(2008 ~ 2011)

연도	전체 사업 예산액(천원)	문화공헌 프로젝트사업 예산액(천원)	비율(%)
2008	340,100	86,613	25.5
2009	318,675	75,592	23.7
2010	241,480	54,544	22.6
2011	251,340	80,648	32.1

(2) 활동 주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은 네트워크 가입 회원(클럽) 중심¹⁰⁾

9) 2007년도는 공모를 통해 클럽에 직접 지원, 2008년부터는 문화재단이 클럽요구에 따라 집행. 이유는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어려움, 사적인 클럽활동에 대한 공격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재단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꿈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 가입은 성남시를 소재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클럽이 소정의 입회

- 1년 간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은 팀별 구성을 통해 진행
 - 매년 1~2회 워크숍 또는 개별 회의를 통해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클럽들을 정함
 - 팀 구성은 팀장을 운영위원회와 문화재단이 협의를 통해 선임
 - 팀장은 장르나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며, 클럽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여 팀을 구성함
 - 팀장의 역할은 한 해 동안 팀활동을 책임지며, 이를 위한 각 클럽 간 연락, 행사기획, 행사 준비 및 진행 등을 담당함
 - 팀장은 재단과 팀장 회의 또는 개별 협의를 통해 한 해 활동을 실행

■ 사랑방문화클럽 실무TF팀

-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1인과 각 팀별 팀장으로 구성(5~6명)
- 문화공연 프로젝트 및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등의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지원(행사 기획, 실행 등) 및 협의
- 기획팀, 홍보팀, 운영팀 등으로 구성
-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회의 개최
- 매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12월 활동보고회 개최 후 활동 종료

■ 사랑방클럽 축제 추진위원회

- 사랑방클럽 축제 기획 및 실행을 문화재단과 협력, 논의를 통해 추진
- 문화재단 실무자, 운영위원회, 팀장, 팀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
- 매년 6월 운영위원회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성
- 추진위원회 구성 후 1회 워크숍 및 상시회의 개최
- 축제 개최 후 평가회의를 갖고 활동 종료

<표 9> 사랑방문화클럽 연간 활동 내용

월	활동 내용	비고
1월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대의원대회)	당해연도 사랑방문화클럽활동내용 공유 및 팀 구성
2월	사랑방문화클럽활동사업설명회	당해연도 사랑방문화클럽활동지원내용 공유 및 조직
3월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지원 신청	팀별 활동계획서 신청
4월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지원 확정	팀별 활동계획 완료 및 예산지원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랑방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 이루어짐

* 클럽 승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킹을 보편, 학습지, 경수기 등의 기업 마케팅이나 정치활동 또는 종교적 포교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가입 심사를 함

* 탈퇴는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 또는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사업 담당자에게 구두 통보 등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킹사업 추진과정

1)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기(2006년)

- 지역사자와 성남시의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추진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진행
- 성남시의 역사/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분석
 - 성남시의 도시발전 역사
 - 70년대 이전 경기도 광주군 소속
 - 70년대 서울 도심정비와 개발에 따라 빈민층 강제이주를 목적으로 성남시 탄생
 - 90년대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통한 서울 강남지역 중산층 이주를 목적으로 분당 개발
 -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의 IT 벤처사업체의 이전과 부동산 과밀화를 해소하려 판교 개발
 - 성남시의 사회적 환경
 - 70년대 도시형성기, 90년대 분당 개발, 2000년대 판교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사회계층들이 유입
 - 이에 따라 구도심(70년대 형성 도심:수정구, 중원구)과 신도심(분당, 판교)간 계층분화와 갈등 발생¹⁵⁾
 - 성남시의 경제적 환경
 - 70, 80년대 제조업 중심(수정구, 중원구)→ 90,2000년대 금융, 정보산업 중심으로 변화
 - 성남시의 문화적 환경
 - 70년대 도시형성기 이전 지역 문화(백제문화권, 남한산성, 모란장 등)
 - 70년대 서울 도심으로부터 강제 이주당한 이주민 문화
 - 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로 유입된 중산층 문화
- 분석 결과
 - 성남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경험한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가 없음
 - 지역 및 계층 간 갈등 현상 발생
 - 분당,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의 중산층 다수 거주
- ⇒ 지역사회 통합과 창의적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체성 확립을

	사랑방문화클럽 출범식(총회)	* 2012년부터는 1월 워크숍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체
5월~10월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실행	문화공연 및 각종 지역사회행사 참여 활동
6월	사랑방클럽 축제 TF 구성 및 워크숍	당해연도 사랑방클럽축제 기획
9월/10월	사랑방클럽축제 개최	성남아트센터(전시/공연) 및 지역 공공장소
11월	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	당해연도 활동 성과 공유
12월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특별제작	당해연도 활동 정리, 기록물 제작, 배포

(3) 시행 주체

■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정기회의 매월 1회 개최)¹¹⁾
- 운영위원회 구성은 연초 1월 워크숍 개최 시 클럽지기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의원회의에서 클럽들의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총회를 겸한 출범식(4월)에서 승인¹²⁾
-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전체임원의 과반수 미만의 인원수는 1회 연임 가능¹³⁾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사랑방문화클럽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갖음

*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권한

1.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2.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3.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4. 기타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

- 문화기획부 업무는 정책 및 사업개발, 사업 실행 업무를 담당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킹사업 관련 업무는 부장 1인이 총괄 담당하며, 실무진으로 차장 1명, 대리 1명 등 총 3명이 담당¹⁴⁾
- 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위한 연간 활동계획 수립, 예산확보, 활동지원, 사업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

11) 2013년부터는 운영위원수가 15명으로 확대

12) 2012년부터는 1월 워크숍에서 회원위원을 받은 클럽대표들이 승인, 확정

13) 활동 연속성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 모두를 교체하지 않음. 즉, 기존 운영위원회 임원의 연속적 활동을 통해 운영위원의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신규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의 활력과 새로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14)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킹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봉사사업 담당자 1명(과장)이 업무지원

위한 지역문화정책 수립 필요

⇒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비전 제시. 이를 실천할 구체적 사업화 전략 마련 필요

■ 성남시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실태조사¹⁶⁾

- 조사를 통해 성남시에 약 1,100여개의 시민문화예술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동호회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1. 예산지원 2. 공간지원 3. 질 높은 프로그램지원 등을 요구

<그림 3>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요구사항

■ 시민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방안 수립¹⁷⁾

- 실태조사를 분석,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킹사업의 발전을 모색

- 우리 전통의 ‘사랑방’을 현대적으로 해석
- ‘사랑방’은 우리 전통의 문예공존장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
- 우리사회는 현대화/도시화에 따라 공동체문화를 상실, 사랑방의 전통이 단절
- ‘사랑방’의 기능을 다시 현대 도시사회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 인식
- ‘사랑방’은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기능을 담고 있음
- 서구의 근대 사회발전기에 ‘살롱’ 문화가 발달
- 공동체문화의 회복과 발전, 그리고 소통과 교류의 장 형성과 발전은 동서양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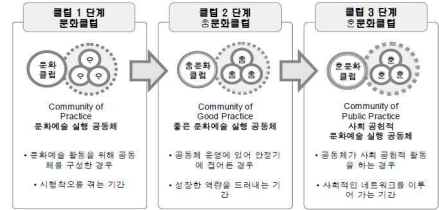
15) 분당지역 거주민들은 “성남에 산다”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대신 “분당에 산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현재 행정 구역상 분당지역은 성남시의 분당구에 해당하는데 분당구 거주민 중 상당수가 성남시와 분리한 독립적인 ‘분당시’로 승격시켜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한계태신문, 2008년 2월 3일자 보도, <판교구’ 추진에 ‘분당시 독립’ 논쟁 제철화> 기사 참조)

1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복구조사>, 성남문화재단, 2006

17)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의 사회적 과제

- 성남시는 시민문화예술 동호회활동이 활발한 지역
 - 실태조사를 통해 활발한 시민문화예술동호회활동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
 - ⇒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 전통의 계승과 발전, 시대적 흐름 등 여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기획
- 사업전략 로드맵과 실행 방법론을 제시
 - 개인의 문화예술향유는 개인의 취향에 바탕을 둔 사적 취미활동
 - 문화예술동호회는 ‘개인의 문화예술 취미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그러나 공적 의미와 공공성의 가치는 부족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방향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개인의 사적 문화예술취미활동을 공공영역의 공적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사회, 문화적 플랫폼 기능을 담당
 - 문화예술을 즐기고 실행하는 시민들이 클럽형태의 ‘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활동과 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



<그림 5> 사랑방문화클럽 단계별 성장 모델

2) 사업 실행 시기(2006년~현재)

(1) 1단계: 기초다지기(2006~2008)

- 목표: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 2007년

- 사랑방문화클럽지기 모임, 클럽파티, 워크숍 등을 통해 클럽 간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사전 모임 등을 개최
- 1기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구성



<그림 6> 사랑방문화클럽 파티 및 지기 모임

-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오픈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지원사업
 - 공모를 통한 개별 클럽 지원
 - 성남아트센터 상 나타난 클럽 요구를 반영하여, 공간임대, 악기임차, 강사료, 행사비 등을 지원

<그림 4> 사랑방문화클럽 분류 모델

※ 출: ‘참’의 옛말.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훈: ‘한’의 옛말. ‘큰’ ‘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우리’라는 의미로 사용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단계별 발전 목표

- 총 37개 클럽 지원(클럽별 최대 300만원 지원)
- 제 1회 사랑방클럽축제 개최
- 38개 클럽, 710여명 참여
- 성남아트센터(양상블씨어터) 및 율동공원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2008년

- 2007년 클럽지원방식에 대한 문화재단 및 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
 - 공공예산으로 개별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내부적 논의
 - 운영위원회와 재단과의 논의 결과, 2008년부터는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결정
 - 개별 클럽 지원 → 팀별 지원,
 - 클럽 활동 지원 → 팀별 문화공헌 활동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소속 클럽이 다른 장르의 클럽이 1개 팀을 결성(1팀: 5~6개 클럽)
 - 팀별로 한 해 활동계획을 수립,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을 이를 심사, 지원
 - 활동 장소: 복지시설, 병원, 공원, 동네, 시장 등
 - 활동 내용: 팀별 5~6회 행사 실행
 - 지원 내용: 팀별 최대 900만원 지원
 - 기타: 팀장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제출¹⁸⁾
 - 총 7개팀(67개 클럽) 46회 행사



<그림 7>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활동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 복지관, 노인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의 공연 요청 시 공연 가능 클럽을 재단이 연락하여 상호 연계 시켜줌

- 제 2회 사랑방클럽축제 개최
- 78개 클럽, 1,271여명 참여
- 성남아트센터(양상블씨어터, 콘서트홀) 및 율동공원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2) 2단계: 구조세우기(2009~2013)

- 목표: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 2009년

- 2008년 클럽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 팀별 지원액 지급에 있어 팀장의 업무 과다 문제 발생
 - 팀 소속 클럽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팀장이 정리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정산에 있어 팀장의 업무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 제기
- 이에 팀의 요구사항을 문화재단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
- 팀장의 사업비 정산 부담을 줄여줌
- 무대/조명/음향/홍보물 제작을 문화재단에 의뢰하면 문화재단 담당자가 집행
- 팀 회의 개최 시 문화재단 담당자가 참석 또는 문화재단에서 회의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 사업방향과 내용은 2008년과 같음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총 13개팀, 102개 클럽, 45회 행사 개최)
 - 신중볼루 여파로 제 3회 사랑방클럽축제 취소
- 세계문화클럽 포럼 개최
 - 영국, 미국, 불가리아, 일본, 독일 등 5개국 의 시민문화예술지원 기관 관계자 초청 포럼 개최
 - 각 국의 시민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현황 소개
 - 상호 교류 및 향후 시민문화예술 동향 예측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제 3회 사랑방클럽축제는 신중독감유행으로 인해 연합전시회만 개최



<그림 8> 사랑방클럽전(2009)

18) 팀장에게 인건비, 진행비, 업무추진비 등 일체의 활동지원을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팀장을 맡은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팀장 활동에 제약을 미치는 부작용 발생

- 한국문예회관연합회(前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주최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문화부 장관상 수상



<그림 9> 전문연 발표대회 시상(2009)

사진 출처: 전국문예회관연합회

- 2010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 2009년과 같음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총 13개팀, 105개 클럽, 40회 행사개최)
- 장르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랑방오케스트라 창단(3월 5일) 및 활동
- 사랑방문화클럽은 다양한 장르별 사업을 통해 클럽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문화 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르별 클럽연합 프로젝트를 진행

<표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 용
사랑방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단 : 2010년 3월 - 구성 : 색소폰 바이올린 클럽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3 창단공연(양상블씨어터) · 2010. 7 제5대 성남시장 취임식 축하연주(오페라하우스) · 2010. 9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개막공연(콘서트홀) · 2011. 3 사랑방문화클럽 솔럼식 공연(양상블씨어터) · 2011. 5 문화공헌프로젝트 사랑방오케스트라 공연(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사랑방통기타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5월 4개 통기타클럽으로 네트워크 활동 시작 - 구성 : 사랑방문화클럽 소속 8개 통기타클럽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9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개막 공연(콘서트홀) · 2011. 3 사랑방문화클럽 솔럼식 공연(양상블씨어터) · 2011. 9 문화공헌프로젝트 통기타연합 공연(희망대공원) · 2012. 7 시민문화클럽한마당 통기타연합 공연(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2013. 7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통기타연합 공연(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장르별 프로그램 사업 진행 내용

<표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사랑방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2008년~2011년 문화공헌프로젝트, 2012년 시민문화클럽한마당의 사업명) - 사업시기 : 2010. 9 - 프로젝트 유형 : 사회공헌 활동
사랑방클럽축제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시민오케스트라페스티벌' - 사업시기 : 2010. 9 - 프로젝트 유형 : 장르축제
사랑방클럽축제 (색소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 '함께불자, 1000명의 색소폰' - 사업시기 : 2010. 9 - 프로젝트 유형 : 장르축제

- 제 4회 사랑방클럽축제
- 157개 클럽, 1,800여명 참가



<그림 10>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2010)

- 성남아트센터(양상블씨어터, 콘서트홀), 율동공원, 남한산성에서 공연 및 전시
- 장르별 축제 개최
- 전국 색소폰 축제 개최
- 색소폰 애호인 또는 동호회 500여명 참가



<그림 11> 전국 색소폰 축제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사랑방연습실 1개소 운영(성남아트센터 양상블 극장 3층 연습실)
- '2010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그림 12> 민관협력 시상 기념(2010)

- 2011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 2010년과 같음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총 12개팀, 105개 클럽, 34회 행사 개최)
- 전시유니트 창단 및 활동

<표 11> 사랑방전시유니트 활동(2011)

프로젝트명	내 용
사랑방전시유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단 : 2011년 3월 - 구성 : 미술공예사진 클럽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3 ~ 11 문화공헌프로젝트 장애인 청소년 미술프로그램 진행 (서현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 2011. 3 ~ 11 문화공헌프로젝트 장애인 청소년 미술프로그램 진행 (서현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 제 5회 사랑방클럽축제(주제: 탄천에서 길어 올린 물고기가 춤추다)
- 121개 클럽, 1,106명 참가
- 사랑방클럽축제 최초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메인행사 진행
- 축제 예술감독 선임(박인배), 개막식 전시 감독(박영택)



<그림 13>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2011)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사랑방연습실 2개소 운영(사랑방연습실: 성남아트센터 양상블 극장 3층 연습실, 사랑방아트홀: 큐브플라자 내 3층 미술관 유희공간)
- 총 21개 단체 사용(2월 ~ 차기년도 2월까지 1년간)
-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단체 선정
- 활동성, 지역사회 문화공헌도, 공간운영 및 관리능력을 주요 내용으로 심사
- ※ 사랑방아트홀은 2012년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단의 계획에 따라, 2012년 2월까지만 사용

- 2012년
- 사랑방문화클럽활동에 대한 클럽 내부 의견 제기
- 문화재단이 공헌활동에 치중, 클럽을 위한 활동 지원 지속적 요구
- 신규클럽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 제한 개선 요구



<그림 14>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및 실무 TF 회의

- 사랑방사랑방문화클럽의 공헌활동 외 클럽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19(총 16개팀, 137개 클럽, 31회 행사 개최)
 - 팀 구성 시 2~3개 신규클럽 참여를 명시
 - 공헌활동 외 클럽의 기량 향상 및 발표 기회 제공 추가
- 제 6회 사랑방클럽축제(주제: 탄천 아리랑)
 - 83개 클럽, 1260여명 참가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메인행사 진행
 - 축제 예술감독 선임(김시번), 야외 전시감독(황환일)
-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 의정부, 부천, 익산 등 11개 지역, 19개 단체 참여
 - 사랑방클럽축제 부대 행사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

19)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기존의 문화공헌프로젝트와 함께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사업만 추진하게 됨



<그림 15>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 문화부 지원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추진
- 부천, 화성문화재단과 컨소시엄으로 추진
-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예술활동을 선주민인 사랑방문화클럽들과 함께 실행
- 미술, 합창, 공예 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클럽이 담당. 총 84명의 이주민 가정 참여



<그림 16> 무지개다리사업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청소년활동 연계 프로젝트 ‘아트매칭편’ 추진(3월~12월)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 6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클럽이 담당

<표 12> 아트매칭편 프로그램(2012)

연번	장르	사랑방문화클럽명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구분
1	모듬북	통돌곶재 두림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그루터기')	저소득
2	사진	디토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정감다리')	장애
3	한지공예	오방지희	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해피투게더')	장애
4	연극	극단 아우러	정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푸른나무')	저소득
5	핀소리	성남 핀소리	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Knock')	저소득
6	합창	원음합창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교육아카데미 '해마리')	저소득

-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을 위한 ‘사랑방정오콘서트’ 개최(5월~12월)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과 공동으로 매월 2, 4주째 금요일 정오에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광장 등에서 사랑방문화클럽 포함 28개팀이 14회 공연 진행



<그림 17> 사랑방정오콘서트

- 문화부 시행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 수상



<그림 18>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 수상(2012)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사랑방연습실 1개소 운영(사랑방연습실: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극장 3층 연습실)

■ 2013년

- 소통구조 개편
- 운영위원회와 개별클럽의 소통부족과 사업연계성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단위 운영 위원 구성을 통한 클럽 간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 운영위원 수 확대 : 기존 9명 → 18명
- 사랑방사랑방문화클럽의 공연활동 외 클럽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총 13개팀, 94개 클럽, 13회 행사 계획)

- 공연활동 외 클럽의 기량 향상 및 발표 기회 제공 추가
- 제 7회 사랑방클럽축제(주제: 생활예술의 새로운 물결)
- 112개 클럽, 1,141명 참가
- 분당구청 잔디광장 특설무대,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모란시장 및 역 주변
- 성남 국제 게임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
- 사랑방클럽전, 시민문화클럽박람회, 전국생활예술네트워크포럼 등 개최
- 축제 예술감독 선임(황두지), 야외 전시감독(황환일)



<그림 19> 제7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수상팀 (2013)

-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 대구, 강릉 등 18개 지역, 48개 단체 참여
- 분당구청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함께 진행
- 문화부 ‘2013년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추진함
- 문화부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에 따른 문화부 지원금 3,000만원으로 추진
- 문화부 지원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추진
- 부천, 화성문화재단 등 7개 경기권 문화재단 컨소시엄으로 추진
-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예술활동을 선주민인 사랑방문화클럽들과 함께 실행
- 미술, 합창, 공예 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클럽이 담당. 총 105명의 이주민 가정 참여(시민사랑방 및 성남 YMCA에서 진행)
- 청소년활동 연계 프로젝트 ‘아트매칭편’ 추진(3월~12월)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 6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클럽이 담당
- 판교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을 위한 ‘사랑방정오콘서트’ 개최(3월~11월)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과 공동으로 매월 2, 4주째 금요일 정오에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광장 등에서 사랑방문화클럽 포함 40개팀이 18회 공연 진행
- 사랑방합창단(4월~11월)
- 한국문화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 선정(13,000천원 지원)
- 클럽 회원 및 지역, 그리고 일반시민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확대 목적
- 매주 금요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연습실 및 성남시교향악합창협회관에서 연습
- 195명 참여(사랑방클럽축제 시 86명 참여)
-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사회공헌 활동 지속



<그림 20> 시민사랑방, 사랑방아트홀, 사랑방연습실(왼쪽부터)

- 경기도가 총 4억원 지원, 성남시가 총 1억 4천만원을 지원. 각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연습 및 발표 공간으로 활용
-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개관식 개최
-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단체 선정
- 활동성, 지역사의 문화공간도, 공간운영 및 관리능력을 주요 내용으로 심사

<표 1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현황(2007~2013)

구분	연도	사업내용	비고
1단계 3개년: 2006 ~ 2008 (기초 다지기)	2007	· 37개 개별 클럽 활동 지원(현금 직접 지원), 제1회 사랑방클럽축제(38개 클럽, 710명 참가)	· 1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출범
	2008	· 사랑방클럽네트워크 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클럽파티 등)	
	2008	· 문화강원프로젝트(67개 클럽, 7개팀, 46회 행사, 간접지원), 제2회 사랑방클럽축제(78개 클럽, 1,271명 참가)	· 2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08	· 사랑방클럽네트워크 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클럽파티 등)	
2단계 6개년: 2009 ~ 2013 (구조 세우기)	2009	· 문화강원프로젝트(102개 클럽, 13개팀, 45회 행사, 간접지원), 제3회 사랑방클럽축제 신종품 투로 취소	· 3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09	· 세계문화클럽 포럼 개최(영국, 미국, 일본, 독일, 불가리아 5개국 참여)	
	2009	· 사랑방클럽네트워크 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클럽파티 등)	
	2010	· 문화강원프로젝트(105개 클럽, 13개팀 40회 행사, 간접지원)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157개 클럽, 1,801명 참가)	· 4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11 ~ 2013	2010	· 사랑방클럽네트워크 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클럽파티 등)	
	2010	· 장로별 축제(기네스도전 1,000명 세손권 연주를 통한 소아암 환자 돕기 행사)	
	2011	· 문화강원프로젝트(105개 클럽, 12개팀 34회 행사, 간접지원) 제5회 사랑방클럽축제(121개 클럽 참가, 1,106명참가)	· 5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11	· 사랑방클럽네트워크 운영(워크샵, 사업설명회 등)	
2012 ~ 2013	2011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137개 클럽 16개팀 참가, 간접지원)	
	2011	· 사랑방클럽축제(83개 클럽, 1,260여명 참여),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11개 지역, 19개 클럽)	· 6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12	· 문화부 지원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84명 이주민, 16명 회원)	
	2012	· 장소년 연계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아트매칭편'(6개 수련관, 6개 프로그램 진행)	
2013	2012	· 판교테크노밸리 '사랑방정오콘서트'(4월~12월, 28개팀 14회 공연)	
	2012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79개 클럽 13개팀 참가, 간접지원)	· 77기 사랑방운영 위원회 및 기획 팀 구성
	2012	· 사랑방클럽축제(112개 클럽, 1,141여명 참여),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18개 지역, 46개 클럽)	
	2013	· 문화부 지원 '문화다양성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105명 이주민)	
	2013	· 청소년 연계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아트매칭편'(6개 수련관, 6개 프로그램 진행)	
	2013	· 판교테크노밸리 '사랑방정오콘서트'(3월~11월, 40개팀 16회 공연)	
	2013	· 사랑방합창단(195명 참여)	
	2013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현황(2013년 7월 현재)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클럽 추이

<표 14>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도별 참여 클럽/회원수(2007~2013. 7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²⁰⁾	2013
참여 클럽수(개)	56	97	129	167	204	152	209
참여 회원수(명)	1,567	2,062	2,511	2,719	2,939	3,486	4,044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클럽 지역별 분포

<표 15>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활동 클럽 지역별 분포(2012년 기준)

구분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기타	총계
공연팀	114	21	13	5	153
전시팀	28	5	4	4	41
기 타	10	3	1	1	15
총 계	152(72%)	29(13%)	18(8%)	10(4%)	209(100%)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클럽 장르별 분포(2012년 기준)

- 공연팀 장르별 분포

<표 16>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공연활동 클럽 장르별 분포

구분	국악	클래식	합창	대중음악	연극	무용	총계
클럽수	39	35	11	49	1	17	152

- 전시팀 장르별 분포

<표 1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전시활동 클럽 장르별 분포

구분	공예	사진	회화	총계
클럽수	12	7	22	41

- 기타 장르별 분포

<표 18>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활동 클럽 기타 장르별 분포

구분	문학	기타	총계
클럽수	5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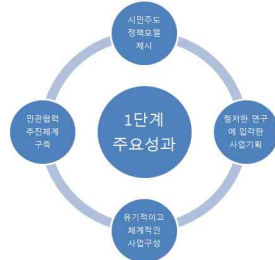
20) 2012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 클럽수가 줄어든 것은 비활동 클럽 및 활동 중단 클럽 등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²¹⁾

1) 추진 성과

(1) 1단계 주요 성과

- 시민 주도형 대안 모델 제시
- 민간협력 추진체계 구축
- 철저한 연구에 입각한 사업기획,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구성



<그림 21> 1단계(2006~2008) 주요 성과

(2) 2단계 주요 성과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노력
- 지역, 국가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사업 구성의 다양성 및 실험성²²⁾
- 시민 중심 기획, 운영 체계 구축
- 성남시 대표 도시문화브랜드로 성장
- 자아실현 및 사회공헌의 장 형성
- 착한 예술의 전국적 모범

21)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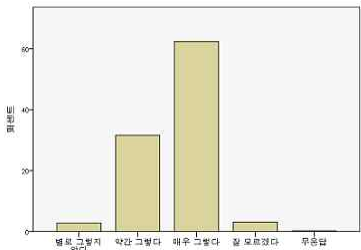
22) 사랑방문화클럽들은 축제를 통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무대와 전시 기회를 갖고, 전문 공연장과 전시장인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앙상블씨어터,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등에서 공연 및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그림 22> 2단계 주요 성과(200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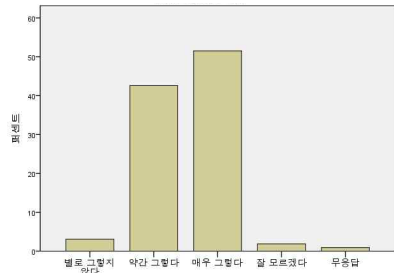
(3) 총평²³⁾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공동체 문화가 체제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 공동체문화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해 이웃 형성과 교류가 높아짐을 확인
- ‘경쟁’ 사회인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봄
- 또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해 지역과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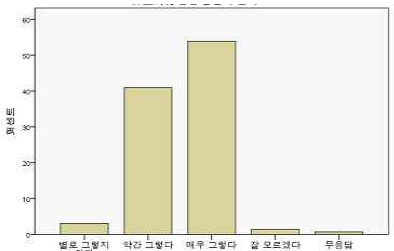


<그림 23>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을 통한 이웃형성

23)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중 ‘사랑방문화클럽은 왜 주목되었나’, 김세훈, 2011



<그림 24> 다른 사람의 입장/관점/문화의 이해정도



<그림 25> 지역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 출처: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지역 내 문화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중요한지에 대해 실천적 사례를 제공
- 우리사회의 자발적 시민공동체 형성에 문화예술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개인들의 사적인 취미활동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 영역의 공적활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우리사회에

-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함을 보여줌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아마추어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보다 거시적이고 문화적인 과제들과 잇닿아 있음을 보여줌
- 방주영의 <생활예술인의 사회적 여가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2012)의 논문에 따르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이 네트워크활동을 하지 않는 클럽활동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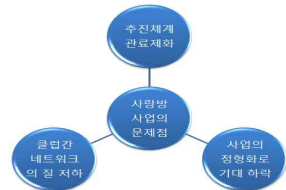
2) 추진 문제점

- (1) 민간협력 추진체계 관료화
 - 2단계(2009 ~ 2013)에 접어들면서 행정과 기획이 분리되기 시작. 이에 따라 제단의 행정적 역할에 중심이 쏠리기 시작함
 - 이는 2008년부터 예산집행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요구에 따라 제단으로 이전되면서 발생하기 시작
 - 균형을 유지하던 관계가 제단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
 - 이에 따른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제단 의존성 증가
 - 클럽활동은 자율성, 자발성이 활발. 반면, 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은 상대적으로 기대보다 미흡
 - 운영위원회, 기획팀, 팀별 활동, 축제 등 관련 조직 구성, 타 클럽 연락, 회의 참석 공연 및 전시 활동 참여 등은 적극적 자발성에 기반함.²⁴⁾ 반면, 사업 계획, 예산 분담, 전체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현상이 발생
- (2) 사업정형화에 따른 참여 동기 및 기대 하락
 - 2단계(2009 ~ 2013)에 접어들면서 네트워크구축이 안정화되고, 문화공헌활동을 강조함에 따라 클럽의 네트워크활동에 대한 자율성 위축과 재미가 감소
 - 과정보다는 결과에, 실험보다는 관행에 의존한 운영방식이 증가
 - 해가 지나면서, 또한 열심히 활동하는 클럽들에게 활동이 쏠림에 따라, 클럽 내부

24) 운영위원, 팀장 등이 각 클럽들을 만나 네트워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회원들에게 연락하고, 만나서 작업들이 필요함. 이러한 활동에는 전화도 걸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게 되는 데, 이 비용과 시간은 상당한 부담이 됨. 제단은 이를 지원하지 않으며, 회원들도 운영위원, 팀장 등 주요 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공동 부담하는 문화는 형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자발성이 생활예술활동 활성화의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임. 우리의 사회환경에서 자발성 요구는 누군가의 헌신적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인간 문화바람의 훌륭한 스텝들이 있는데, 직업이 아닌 이상, 생활인으로서 생활예술인들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음. 제단이 이 역할을 요구하지만, 수백 개의 클럽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역시 매우 고된 작업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유상진 과장 인터뷰 중)

- 에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에 대한 피로감과 소극적 태도가 발생
- 클럽 내부적으로 각 개별 클럽활동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기 시작
- 이는 제단의 지원이 각 개별클럽이 아닌 네트워크활동과 공헌활동에 집중되면서 발생함²⁵⁾

- (3)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이 초기보다 저하
 - 초기 클럽과 후기 신규클럽 간 교류 부족, 수준별 차이에 따른 클럽간 연대 미흡 등이 발생
 - 초기 운영위원, 클럽회원, 제단 직원 간 개인적 유대형성이 강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단 직원이 순환근무제에 따라 바뀌고, 운영위원진이 바뀌면서 그동안 형성된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점차 없어지게 됨
 - 개별 클럽활동의 자생성과 자발성은 높으나, 클럽 간 네트워크활동에 대한 자생성과 자발성은 기대치 보다 미흡한 수준임
- (4) 동네와의 연계, 협력활동이 감소
 - 초기 기획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통해, 동네 클럽이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되고, 사랑방문화클럽이 동네행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활동이 상당수 있었음
 - 그러나, 2011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동네지원센터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예산이 1/4로 줄어들면서 양 사업간의 연계가 단절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동네와 사랑방문화클럽의 연계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게 됨



<그림 26>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문제점

25) 성남문화재단과 초기 클럽들은 사적인 개인들의 취미활동에 공적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음. 이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당지역 클럽들에 대한 역전성 문제를 일으킨 있음. 더욱이 공공성에 기반한 시민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유상진 과장 인터뷰 중)

IV.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2014~2020)

1. 성남문화재단 3단계 7개년 생활예술 정책 방향

■ 7개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사랑방문화클럽 3단계 7개년 생활예술 정책 방향

- 사랑방문화클럽 3단계 7개년 생활예술 정책 방향을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시해 보고자 함. 사랑방문화클럽의 1, 2단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었던 바, 이 장에서는 앞으로 맞이하는 3단계 7개년간 사랑방문화클럽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개선되거나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아이디어, 혹은 마인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함
- 여기서 제시하는 마인드의 변화 혹은 도입해야 할 아이디어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둘러싼 관계 요소들 (Akteure), 곧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 및 운영위원과 제단 실무자들 혹은 정책입안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이견에 따른 갈등 요소를 함께 제거하면서 협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1) 첫 번째 키워드: 자발성 축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

- 그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랑방문화클럽이 풀어야 할 과제 중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결국 회원들의 '자발성' 임이 드러나고 있음. 회원들의 '자발성'은 2006년 사랑방문화클럽이 출범한 이후 성남문화재단에서 궁극적 목표 중 하나로 지향하고 있는 바이나 1,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처음 출범 이후 현저한 변화가 보인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임
-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예술 활동을 이끌어가게 하는 추동력의 근원은 '자율적 예산 결정권'에 있음. 사랑방문화클럽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제단에서 짜고 실행하는 방식, 곧 회원들이 제단에서 배정된 액수의 예산을 배정한 방식대로 집행당하는 대상이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 자발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
- 영국의 복권기금 지원절차가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영국의 복권기금은 각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해서 각 기금이 제시한 목표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서, 각 지역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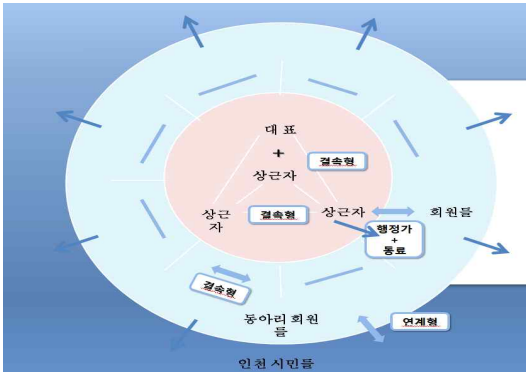
- 또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공개회의를 통해 운용내역에 대한 공개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소모성 경비 지원이 아니라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클럽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공간'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어야 함. 장기 용자를 통해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환급 과정에서 제단과 클럽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클럽의 새로운 관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방식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나 조례 등 법 변경을 위해 제단이 노력하고 클럽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함. 제단의 입장에서라도 이런 방식의 예산 집행을 할 경우 궁극적으로 지원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예술 행위에 대한 소모성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임

2) 두 번째 키워드: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정종은, 2013)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단과 클럽간의 관계는 초기에 비해 관료화되었음이 회원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 이는 다시금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의 문제와 연결되는 바, 제단이 클럽의 예산 관련한 기획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두 집단 간의 원활한 소통은 일정한 한계를 담보할 수밖에 없음
- 제단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공유가 시급하다고 생각됨. 일례로 제단은 사랑방문화클럽의 계속 지원에 있어 상위 기관에서의 비판 (사적 예술 행위에 대한 공격 기금의 지원이 적절인가)을 받고 있는 바, 공격 기금 운용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생활예술의 사회 공헌적 기능을 강조해야 함. 제단의 사회 공헌 강조를 명분을 앞세우는 공공 기관의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클럽의 계속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차원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 클럽 회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 키워드인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함

3) 세 번째 키워드: 문화매개자로서의 재단 상근자

- 일반적으로 문화매개자는 “지역에서 예술과 일상, 예술과 공동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는 문화예술 강사”로 정의되고 있음. 그러나 성남사랑방문화클럽에서의 문화매개자는 예술과 공동체를 매개하거나 강사로서 예술적 기능을 전수하는 것보다 재단의 정책 방향과 클럽의 요구 사항 사이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
- 이제까지 재단 내 클럽 담당자들이 이러한 의미의 문화매개자 역할을 해왔으나 회원들 입장에서 재단 직원들은 재단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공무원’에 다름 아니었으며 회원들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왔음. 그러나 다른 생활예술공동체의 경우(인천 문화바람)를 볼 때 회원이자 행정가로서 클럽에 헌신하는 문화매개자가 있을 경우 회원들이 그 문화매개자로부터 받는 영향은 심대하며 그로 인해 클럽에 대한 소속감도 증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럽의 대표와 상근자들 간의 내부 결속(결속형)과 회원들 간의 결속이 존재하고, ‘대표, 상근자의 결속’과 ‘회원들 간의 결속’을 매개해주는 조직이 (인천 문화바람의 경우) 바로 문화매개자 역할을 하는 상근자임. 이렇게 클럽 내부에서의 결속감이 강할 경우 외부 사회와의 ‘연계’도 강화되는 것임



〈그림 27〉 인천 문화바람 대표, 상근자(문화매개자) 및 회원들과 인천시민들의 관계성

- 3단계 7개년 기간이 지나고 난 뒤 궁극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예술공동체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 간 재단 상근 직원의 문화매개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문화매개자의 헌신에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문화매개자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보다 많은 일을 해낼 때 받게 되는 일종의 ‘감동’을 통한 것임. 재단 상근 직원으로서 재단과 클럽을 연결하는 문화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자신의 클럽에 대한 애착과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므로 재단 내부에 사랑방문화클럽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관리하면서 동시에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매개자를 두는 것이 중요함. 재단의 공적 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매개자가 일종의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겸비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 상황임

4) 네 번째 키워드: 사랑방문화클럽의 공간 확보

-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정종은, 2013)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사랑방문화클럽에 정착 회원들이 모임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없다는 점은 회원들의 큰 불만사항이 되고 있음
- 회원들의 공연 장소로 성남아트센터라는 공적 공간이 있다는 점은 사랑방문화클럽의 큰 장점이나, 이것 외에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또한 그 공간은 성남문화재단이나 성남아트센터와 같은 공식적이고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 곳이 아닌 외부에 존재해야 함
- 그래야 하는 핵심적 이유는 클럽 회원들이 재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만의’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회원들은 재단 지원을 받은 만큼 재단이 지향하는 바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검열을 할 수 있음.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화예술적 행사뿐 아니라 회원들의 일상적 필요에서 나온 행사 기획안 (예를 들어 아나바다 운동이나 공동 김장 등)이 도출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회원들이 자신들의 자율권을 확인하고 여기서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됨. 특히 평회원들의 의견이 수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단 외부에 회원들이 전적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여기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함
-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은 재단이 장기 용자를 해주고 회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상환하여 결국에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임

5) 다섯 번째 키워드: 창작 행위의 활성화

-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예술에 있어 기성 전문음악인의 음악을 모방하여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 가사와 멜로디를 작사·작곡하고 이를 공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일임
- ‘우타고에’ 합창단은 일본의 대표적 문화운동단체 중 하나로, 일본어 ‘우타고에’는 ‘노랫소리’라는 뜻이고, 일본 민족의 전통적인 노래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평화의 노래, 사람들의 생활의 노래라는 세 가지를 창조의 원천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생활예술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이른바 ‘카피 동호회’임. 동호회 활동에서 보다 진정성 있는 생활예술공동체만의 예술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멜로디에 담아 자신의 목소리로 공연하는 기회를 얻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사랑방클럽축제’의 분위기를 창작곡 위주로 서서히 바꾸어나가는 방식이 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회원들의 창작곡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해도 한두 개 동호회가 창작곡 발표를 시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카피 동호회’가 아니라 ‘창작 동호회’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임

6) 여섯 번째 키워드: 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

- 클럽 내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클럽 간 활성화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해서 여러 동호회가 모여 공연을 하는 경우 자기 동호회 공연만 보고 가거나 심지어 뒤통이 활성화를 위해 재단이 뒤통이 비용을 대는 경우에도 동호회별로 모임에 갖는 경우가 많았음
- 클럽 간 교류 활성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음. 첫 번째, 네 번째 키워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방문화클럽만의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클럽만이 아니라 다 동호회 회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대면 접촉이 기반이 되어 이후의 동호회 활동에서도 연합적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작곡 동호회가 만든 음악으로 기타 동호회에서 연주를 하고 그 공연을 사진 동호회가 찍어주는 등의 협업 활동을 통해 동호회 간 교류 행위가 생길 것임
- 축제 등 사랑방문화클럽의 기획 및 운영을 회원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회원들이 단지 무대에 올라 자신들에게 배정된 공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자체의 운영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행사에 남아 있게 되고

그 운영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다시금 첫 번째 키워드였던 ‘자발성’ 혹은 ‘자율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결정권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때 행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클럽 간 교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이제까지 사랑방클럽축제에서의 운영에 회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7) 일곱 번째 키워드: 사랑방문화클럽의 사회 공헌 활동

- 문화클럽 외부와의 연계, 혹은 사회 공헌 활동은 클럽 내부 회원들의 필요성이 없으면 결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문화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대의명분은 취미공동체에서 취미로 예술을 배우고 같은 예술을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명분이 될 뿐 지속가능한 공헌이 되기는 어려움
- 사회 공헌 활동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존재 사유 중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회원들이 인지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지속가능함을 위해서라도 사회 공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태도의 변화가 올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사회 공헌 활동에서 ‘보람’과 ‘재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될 것임
-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 지원 사유 = 사회 공헌’이라는 점을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해야 할 것이며 재단과 클럽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게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함

2. 사랑·방문·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과제

- 상기 정책방향에 대한 추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각 정책 방향별 추진과제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총 5개 영역 12개 과제로 정리함
- 1)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강화 방안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핵심 과제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자발성 논의는 크게 2가지로 나뉨
 -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트워크활동의 예산 부담
 -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트워크활동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우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자발성

- 최근 생활예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생활예술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 개인도 일상에서 활발히 생활예술을 향유하고 있고 확대, 추세임
-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정책이 클럽네트워크활동에 중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임
 - 모든 시민의 생활예술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1인 1기’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이를 공공영역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개인 취향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이 강제할 수 없는 것임
 - 클럽활동은 시민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활동하는 사적 영역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개인의 취향형성과 선택, 그리고 활동은 개인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볼 수 있음
 -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공공이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등의 여러 자원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윤리적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음
 - 클럽활동은 개인의 의사 그리고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관심, 참여의지,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능. 즉, 자발성이 매우 높음
 - 반면, 클럽네트워크활동은 클럽들이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뿐 만 아니라, 교류, 연대, 협력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음
 - 또한 개인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을 보고 ‘나도 클럽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

지게 하는 것 역시 성남문화재단이 기대하는 것임

- 따라서 클럽네트워크활동은 공공영역의 공적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지원내용
 - 결론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은 각 개별 클럽활동을 지원하지 않음. 클럽활동과 클럽네트워크활동은 서로 다른 성격이라고 봄
 - 각 개별 클럽에게 활동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하지 않음
 - 대신 클럽네트워크활동을 지원함. 클럽들이 팀을 구성하고 공연이나 전시에 필요한 무대, 장비,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함. 팀 구성, 장소, 프로그램 구성은 팀이 직접 기획
 - 또한, 문화공헌에 소요되는 재료비, 물품 구입을 지원함. 문화공헌의 대상, 장소, 프로그램 등의 기획도 역시 팀이 직접 기획함
 - 3개 사랑방연습공간 역시 사회공헌도가 높은 클럽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함
 - 많은 클럽들이 클럽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실제 자기네 클럽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활동 중단, 탈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사실 개별 클럽에 대한 활동지원은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재단에 대한 불만 사항이기도 함. 이는 재단의 가장 큰 고민이며 딜레마이기도 함
-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클럽활동은 매우 자발성이 높음. 그러나 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
 - 클럽회원들에게 우선 순위는 당연히 자신이 속한 클럽임. 클럽들이 서로 모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 그리고 공헌활동을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번거로운 것일 수도 있음
 - 클럽 간 네트워크 구성이 클럽 내부의 욕구에서 스스로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임
 - 성미산, 인천 문화바람 사례가 매우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점이 분명하나 이를 모든 일반적 사례 또는 모형으로 보편화 하기는 어렵다고 봄. 2013년 현재 215개 클럽이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문화공헌과 축제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성남 사례 역시 특수사례라고 봄
 - 재단은 클럽네트워크활동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제시하고 클럽들은 이에 동의하고 네트워크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은 ‘클럽 스스로가 네트워크활동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봄
 - 자신 클럽활동이 아닌 클럽 간 교류, 소통, 협력, 그리고 공헌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 참여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그동안에는 재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실행하는 형태였음. 사랑방문화클럽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것은 재단이 반성할 점임
- 정리하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비전, 목표, 과제 등의 정책 기획단계에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공동 기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는 민간거버넌스 실현이라는 당초 목표이기도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함
- (1)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예산제 시행
-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을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와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계획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강화. 이를 통한 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 간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을 지향
- (2)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운영
- 운영위원회, 사랑방활동가 등의 네트워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제 운영을 통한 예산 부담 제도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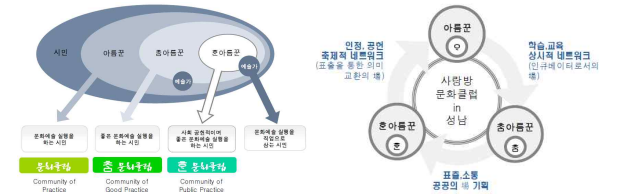
2) 창작 행위의 활성화/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사회공헌 활동 방안

- 클럽 간 교류 및 창작 활동을 활성화 위해 기존 ‘이중 장르 연합’ 활동에서 ‘동종 장르 교류’ 활동의 네트워크를 추진. 이를 통해 전문예술가와 연계도 확대 강화
 - 현재 미약한 사랑방문화클럽 단계별 발전 모델을 적극 적용하고, 또한, 클럽 욕구에 따라 연간 활동영역을 선택하여 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
 - 현재의 중장년층 중심의 네트워크활동에서 아동/청소년/노인층의 클럽네트워크활동을 포괄하는 세대간/지역간 클럽네트워크의 확대와 활동 강화
 - 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 등에서 양성, 활동하는 클럽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클럽네트워크활동 참여를 지향함
 - 클럽네트워크활동의 대외 확대와 교류 증진을 위해 전국과 세계 교류 활동을 추진
- (3)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
- 동종 장르 간 클럽 교류 활동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 참여 확대

(2010년 색소폰 축제, 2011년 전시 유닛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감)

(4)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은 클럽들의 선택의 폭이 작았음
- 문화공헌 프로젝트, 사랑방한마당, 축제 등
- 클럽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힘
- 장르별 네트워크/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문화공헌프로젝트/사랑방문화클럽축제/클럽데이/생활예술학교 등
- 사랑방문화클럽의 단계별 성장체계가 순환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개, 발전26)



<그림 28> 사랑방문화클럽 성장 모형

(5) 구별 네트워크 구축

- 취향공동체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생활공동체와 연결하고 보다 동네 중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별 네트워크를 구축
- 문당/중림/수정/관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 관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기업체 직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구축하며, 이를 위해 관교테크노벨리추진단과 협력하여 추진

(6) 전국 단위 클럽 교류 추진

-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국 단위 문화재단 연합회 행사로 발전시키며, 향후 일본의 국민문화제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감

26) <사랑방문화클럽발전방안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7) 국제 생활예술 교류 추진

- 그동안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불가리아 외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시민 문화예술 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 실질적 교류 활동은 중국, 일본과 동북아시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

(8)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적 여가적 활동 확대

- 사회적 여가²⁷⁾는 개인의 여가를 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육성하여 생활예술 중간조직을 구축, 사랑방문화클럽활동과 지역민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감
- 생활예술활동의 확대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시민에게 자신의 기량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함께 생활예술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

3) 문화매개자로서의 제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 제단의 문화매개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클럽회원들을 생활예술활동가로 육성하여 생활예술 중간조직을 구축, 사랑방문화클럽활동과 지역민의 생활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감
- 생활예술활동의 확대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들이 시민에게 자신의 기량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함께 생활예술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

(9)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 육성

-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가와 활동가를 발굴,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10)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

- 2단계 5개년 포지서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서 제안한 생활예술 학교의 추진
- 생활예술의 저변확대와 사랑방문화클럽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구별 네트워크 구축, 생활예술학교 등의 실천 공간을 마련하고 취향공동체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이 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운영

(11) 구별 거점 공간 확보 및 운영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 2단계 5개년 포지서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서 제안한 생활예술 센터의 실행을 위해 거점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성남시 생활예술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고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12) 생활예술 지원조례 제정

- 2단계 5개년 포지서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서 제안한 생활예술 지원조례의 제정을 위한 실질적 구현 노력을 전개

<표 19>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정책별 추진 과제(2014~2020)

연번	정책	추진과제
1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강화 방안	(1)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예산제 시행 (2)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운영
2	창작 행위의 활성화/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사회공헌 활동 방안	(3) 정례별 네트워크 활성화 (4)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5) 구별 네트워크 구축 (6) 전국 단위 클럽 교류 추진 (7) 국제 생활예술 교류 추진 (8)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적 여가적 활동 확대
3	문화매개자로서의 제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9)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 육성 (10)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11) 구별 거점 공간 확보 및 운영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화 운영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2) 생활예술 지원 조례 제정

27) <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3.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3단계 7개년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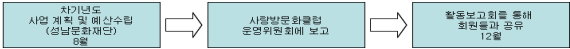
1)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간의 소통 강화 방안

(1)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예산제 시행

- ① 목적
 - 사업 참여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의 자발성 및 참여 동기의 강화
 -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의 욕구와 제단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조화와 협력을 지향
 - ‘취미공동체’의 성격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성격의 조화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시민참여 활동장 마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 정보의 회원 공유를 통한 사업이해 및 인식 제고
 - 사업 참여 사랑방문화클럽들의 행정적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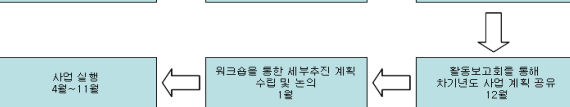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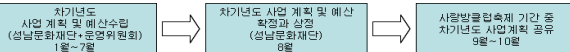
② 내용

- 기존에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연간 계획 및 예산 수립을 제단이 결정하고(매년 8월) 이를 운영위원회와 공유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



<그림 29>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간 추진 일정(2007~2013)

- 매년 초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해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논의하여 향후 6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



<그림 30>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예산제도 흐름(2014~2020)

- 주민참여예산제도 형식을 도입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제단과 함께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
- 사랑방문화클럽의 비전, 목표를 항상 노출시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접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
- 운영위원회 회의록 표지, 각종 홍보물 등에 사랑방문화클럽 비전이나 목표를 항상 삽입토록 함

※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

- 다른 공모지원사업처럼 공모를 통한 예산지원방식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클럽들의 결과보고 및 정산 부담이 있음
- 집행 항목의 제한, 집행방법 등 불편한 점이 있음
- 개별 클럽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네트워크활동에 대한 자발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공격 제원의 공공 목적 사용을 위해서 네트워크 차원의 논의, 제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공공성의 실현을 높일 수 있다고 봄

※ 생활예술의 자발성에 대한 견해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추진과정, 특히, 2007년 겨울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화공헌의 강화와 지원’, 그리고 2008년~2009년에 발생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대응(팀장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간접지원방식의 채택 등)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의 자발성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의 자발성은 사적 취미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적 활동이 조화를 이룬 활동을 직접 기획, 실행,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자발성을 예산의 자기부담과 독립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생활예술 조례 제정 시 이와 관련한 논의와 내용이 정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차기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공유는 사랑방문화클럽회원 뿐 아니라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등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음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관련 활동의 지원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과 제단의 공동 계획을 워크숍, 활동보고회 등에 성남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제단은 이 과정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사랑방 문화클럽을 사업 대상자가 아닌 공동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는 제단과 사랑방문화클럽이 ‘갑을’ 관계 또는 제단 직원의 관료화를 해소, 극복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은 함께 계획, 공유함으로써, 예산집행과 활동에 있어 불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p>※ 사랑방문화클럽활동 시 나타나는 회원들의 불만 사항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예산 계획상의 항목, 내용 등의 공유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활동 시 “왜 이런 지원 없었느냐” ‘ ‘ 그것도 지원해 주지 않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미리 예산 구성과 내용, 그리고 항목들이 공유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 기획팀 등 실행단위에서 사전 필터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예산 구성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절차적 준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봄 ○ 2007~2009년까지 실시한 회원가입 시 회원교육을 다시 실행하여,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월별 정기 교육 실시)
--

(2)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운영

- ① 목적
- 사랑방문화클럽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 및 운영을 강화
 -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정해진 공적 재원의 대체 재원 확보
 - 사랑방문화클럽들의 멤버십 및 소속감 강화
 - 생활예술 활동가의 활동 지원 및 사랑방문화클럽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의 지원
- ② 내용
- 제단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은 클럽네트워크의 자율적 활동에 지원

<표 20> 성남문화재단 및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의 사용 구분

분 류	재원	사용목적 및 내용
성남문화재단	시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헌 활동 및 소외층 지원활동 ● 사랑방문화클럽축제/전국시민문화클럽합미당 ● 지역 거점 공간 확보 또는 리모델링 ● 생활예술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생활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회비, 기부금, 편당 등의 민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운영비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생활예술 활동가 활동비 지원 등

- 재원 조성 방안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제 운영
- 1개 사랑방문화클럽 당 연회비 납부

<p>※ 회원제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안에 대한 사랑방문화클럽 내부의 찬반 의견이 강함 ●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납부 시행 시 회원클럽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탈퇴 예상 ● 그러나 2007년 논의와 같이 공적 재원이 개별 사적 취미활동 지원에 쓰이는 것에 대한 합의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취지에 공감, 동의하지 않는 클럽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또한 늘어나는 신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 클럽에 대한 활동 참여가 예산 제한으로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 강사, 강연, 초청사례비의 20%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기부
- 많은 외부 단체 및 기관들이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소개 및 추천, 초청 공연 등을 요청함. 이에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을 연결해 주는 업무를 제단 담당함
- 이러한 외부 추천 활동에 참여하고 받는 사례비의 일부를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재원 조성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
- 향후 학교 교육의 ‘창의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복지관 등의 문화예술교육 강좌에 제단이 연결 해 주는 강사직에 적용 가능

<p>※ 시범적 운영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2012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문화예술프로그램인 ‘아트매칭편’ 사업을 추진 중 ● 총 6개 수련관에서 6개 프로그램에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이 강사로 활동 ● 매월 강사로 중 20%를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에 기부

-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의 컨트레이징 역할 부여
- 생활예술학교 과정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들이 컨트레이징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생활예술 활동가들이 지역 내 기업, 상점 등을 대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
-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예술 활동가가 향후 사회적 경제 등의 지역 공동체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장기적 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은평구의 경우 시민활동가들이 동네 상점 및 기업에 협찬과 기부를 받아 은평구 시민축제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재원 운영의 책임
-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의 운영은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가 담당
- ‘돈’ 문제의 경우 네트워크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담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유지된다면 시도할 만한 하다고 봄
- 재원 운영
-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활동가 활동 지원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등 육성된 활동가의 활동에는 비용이 발생
- 그동안, 생활예술 활동가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면에서 실행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았음
- 특히, 클럽 간의 조정, 연계,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의 통신비, 교통비, 회의진행비 등의 지원이 제단 재원으로는 어려웠음
- 향후 지역별 거점 공간 운영이 현실화 될 경우, 사무국 운영경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인친의 ‘문화바람’과 같은 자치 운영 조직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안으로 제안함
- 향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독립화를 통한 독립적 활동 기반이 될 것임
- 사랑방문화클럽 멤버십 강화와 사랑방문화클럽의 홍보를 위해 각 클럽에 사랑방문화클럽 로고, 클럽명이 담긴 배너 등을 제작, 배포

2) 창작 행위의 활성화/클럽 간 교류의 활성화/사회공헌 활동 방안

(1)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

- ① 장르별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
- 생활예술이 지향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예술창작과 표현, 향유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의 창조자가 되어가는 과정
 - 생활예술 활동의 기본 단위인 문화예술클럽은 시민이 창조적 주체로 시민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기본 동력이고 사랑방문화클럽은 이러한 개별 문화예술클럽의 연합 네트워크조직
 -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활동은 문화클럽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헌 활동, 사랑방클럽축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정례화, 안정화를 찾아가는 한편 클럽들의 새로운 요구들은 사랑방오케스트라, 사랑방전시유니트, 사랑방통기타연합, 사랑방밴드, 사랑방클럽축제 프로그램(시민오케스트라축제, 색소폰 1000명 불기) 등의 장르별 활동으로 분출
 - 개별 클럽과 회원들은 성별, 나이, 직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 장르 클럽에

대해 동질감과 함께 선의의 경쟁심을 느낀다. 이러한 동질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고하고, 선의의 경쟁심은 시민문화예술 역량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장르별 네트워크 사업 강화 필요

② 사랑방문화클럽에서의 장르 분류

- 장르의 어원은 ‘종류’라는 프랑스어에서 비롯되어 크게는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의 종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세부적으로 문학은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으로, 음악에서는 클래식, 록, 재즈,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힙합 등으로 분류
- 사랑방문화클럽 초기에는 공연클럽과 전시클럽으로 장르를 크게 분류하였고 신규 클럽의 증가와 다양한 장르별 활동을 통해 공연클럽은 국악·노대·대중음악·클래식 클럽으로 전시클럽은 회화·공예클럽으로 장르를 분류
- 사랑방문화클럽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신규 클럽이 활동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하므로 이에 맞게 장르별 네트워크의 장(場)을 만들어야함

<표 21>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활동 구성

분 류	현 행	개 선 안
대분류	공연클럽, 전시클럽	장르위원회
중분류	국악, 노래, 대중음악, 춤, 클래식, 회화, 공예	장르분과(전통연희·대중음악·댄스·클래식·미술분과)
소분류	개별클럽	동일 장르 클럽연합 (예, 사랑방통기타연합, 5개 이상 동일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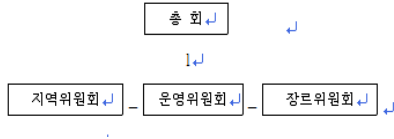
③ 추진 목표 및 과제

- 사랑방문화클럽 장르별 활동의 제도화
- 역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는 장르와 지역을 우선 배려하여 구성하였고, 장기적으로 장르별, 동일 네트워크 사업이 중요시 되므로 정관에 반영하여 제도화

<표 22> 역대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장르별 구성 현황(200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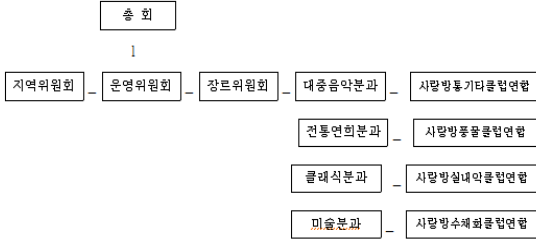
연도	성별		계	장르								
	여	남		국악	노래	대중음악	춤	클래식	회화	공예	문학	기타
2007년	3	6	9	2	0	1	1	2	1	1	1	0
2008년	2	5	7	1	0	3	0	1	2	0	0	0
2009년	4	3	7	0	0	3	0	1	2	1	0	0
2010년	5	4	9	1	0	2	0	2	2	1	1	0
2011년	5	4	9	0	0	4	0	1	2	0	1	1
2012년	5	4	9	1	0	3	0	2	2	0	0	1
2013년	11	5	16	3	2	2	1	6	0	0	0	2

- 사랑방문화클럽 정관에 장로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위원회에서 일정 수의 운영위원을 선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그림 31>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조직도

- 사랑방문화클럽 장로위원회에는 유사한 장로별로 중규모 장로분과를 두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동일 장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장로클럽연합을 둔다. 또한 소규모 장로클럽연합은 5개 클럽 이상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그림 32> 사랑방문화클럽 장로위원회 구성안

- 장로별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지원 목적
 - 장로별 학습기회(가정, 시민예술향상캠프) 제공을 통해 시민문화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
- 지원 내용
 - 중규모 장로분과와 소규모 장로클럽연합에게 학습기회 부여
 - 연중 1개 중규모 장로분과와 1개 소규모 장로클럽연합 지원

- 공모와 심사 절차를 통해 선발
- 장로별 타 지역과의 네트워킹 지원
- 지원 목적
 - 장로별 생활예술운동의 전국화 하여 지역 내 장로 활동 한계 극복
- 지원 내용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옛, 문화공연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장로별 클럽 워크숍 지원

④ 연도별 추진계획

<표 23> 사랑방문화클럽 장로별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 ~ 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사랑방문화클럽 장로별 활동의 시스템 구축 - 장로별 기반으로 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기반조성 - 장로별 시민예술향상캠프(가정) 사업 준비
	2015	- 사랑방문화클럽 제도 개선(장로위원회, 분과, 클럽연합 신설) - 장로별 생활예술향상캠프(가정) 시범 사업 선정 - 장로별 전국 네트워크 시범 사업 계획
	2016	- 사랑방문화클럽 장로별 조직 사업 확산 - 장로와 지역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공간 조직 체계 구축 - 장로별(장로분과 단위) 생활예술향상캠프(가정) 진행
	2017	- 사랑방문화클럽 장로별 조직 사업 성남시 클럽으로 확대 추진 - 장로별(클럽연합 단위) 생활예술향상캠프(가정) 진행 -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성남시 장로별 축제의 연결
	2018	- 전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장로별 축제의 준비 - 장로별 전국 단위 네트워크 시범 사업 선정 - 모범적인 세계클럽축제 참가
	2019	- 전국 생활예술네트워크 구축 - 장로별 활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단위의 장로별 사랑방축제 진행
	2020	- 세계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 세계를 연결하는 장로별 사랑방축제 진행

(2) 선택적 클럽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 ① 선택적 네트워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
 - 클럽들의 활동을 욕구에 맞추어 나누면 크게 클럽활동(발표)과 공헌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클럽 발표 또는 클럽 간 교류활동을 희망하는 클럽과 공헌활동을 희망하는 클럽으로 구분
 -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함에 따른 클럽들의 부담과 피로도가 발생
 - 따라서 타 팀과의 연계 네트워크활동이라는 전제하에 발표활동과 공헌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함
 - 매년 클럽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참여토록 함
 - 지역 간 클럽 교류활동의 방안으로 추진

- ② 주요 내용
 - 클럽 발표 및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 기존의 클럽 간 네트워크 활동의 틀을 유지
 - 신규클럽을 포함한 팀별 구성을 통한 공연 및 전시 활동
 - 제단 예산으로 지원
 - 사랑방문화클럽 클럽데이
 - 클럽별 또는 클럽 간, 그리고 전문예술인 연계 공연 및 전시
 - 자율적 조직, 구성, 진행(생활예술 활동가가 기획, 추진)
 -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추진
 - 전문성이 높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기간이 긴 클럽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타 클럽 회원,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행사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에서 운영(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등)
 - 제단은 공간 및 보유 장비, 홍보를 지원(예산 지원 없음)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연 프로젝트
 - 사랑방문화클럽이 소외층을 위한 공헌활동을 희망, 실행 시 제단이 지원
 - 지원방식은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과 같이 간접지원
 - 지원내용은 공헌활동 희망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한마당사업과 같이 연초 계획서를 받고,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

※ 문화공연 활동지원에 대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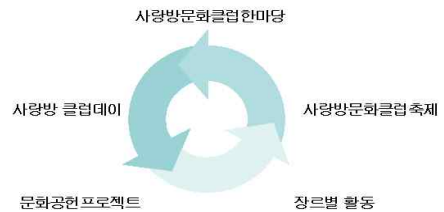
- 많은 클럽들이 자체적으로 문화공연활동을 수행 중. 이러한 클럽들은 문화봉사활동을 제단이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백만기 초대 운영위원장)
- 그러나 문화공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제단 지원금으로만 문화공연활동을 할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음

- 반대로, 예전의 문화공연 프로젝트가 모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공헌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클럽의 자율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클럽 스스로가 공헌활동을 하겠다고 선택했다면 예전의 문화공연 프로젝트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③ 연도별 추진계획

<표 24> 사랑방문화클럽 선택적 클럽네트워크활동 연도별 추진계획(2014 ~ 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연 프로젝트 시행 - 클럽데이 시범적 추진과 평가
	2015 ~ 2020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연 프로젝트 시행 - 지역별(가정별) 클럽데이 확대, 지속 추진 - 타 지역 및 전문가 참여



<그림 33> 사랑방문화클럽의 선택적 클럽네트워크활동 영역과 순환

(3) 구별 네트워크 구축

- ① 구별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조건
 - 2단계 5개년 계획에서 동네별 네트워크 구축을 수립. 추진은 했으나 성과는 미흡
 - 취향 또는 취미 공동체인 사랑방문화클럽에게 지역 기반성은 약함. 이에 따라 동네별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당시 지역 거점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
 - 현재 운영 중인 사랑방아트홀(분당), 시민사랑방(수정)과 함께 증원구에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이 공간들을 지역활동네트워크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간은 클럽 간 교류활동에 필수적인 물리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공간 중심의 구별 네트워크 구축을 다시 시도
- 취미 공동체인 사랑방문화클럽이 지역 거점 활동과 지역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별 네트워크(분당/중원/수정/관교) 구축을 추진

② 주요 내용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추진
- 분당/수정/중원/관교 지역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구성
 - 각 구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형성된 클럽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함
 - 관교 사랑방문화클럽은 관교테크노밸리 근무 기업체 동아리들로 구성
 - 관교 지역 거주 시민 문화예술클럽은 분당지역 네트워크로 가입
 - ※ 사랑방정오 콘서트에 관교테크노밸리 근무 기업체 동아리 참여 추진
 - ※ 관교 동아리 육성프로그램 추진(강사: 사랑방문화클럽, 예산 및 공간: 관교테크노밸리 지원단)
 - ※ 우선적으로 관교테크노밸리 지원단과 공동으로 관교테크노밸리 기업체 동아리 조사 실시 후,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
 - ※ 이후, 관교테크노밸리 기업체의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편당을 추진(이는 성남 문화재단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편당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 기금으로 귀속, 사용)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활동
 - 분당구의 ‘한마음 축제’와 같이 구청이 추진하는 구별 축제를 기획, 실행하는 데 중심 역할 수행
 -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구별 네트워크 활동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구별 활동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전수
 - 구별 활동은 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나눔 및 문화공헌 활동을 구 단위로 수행
 - 지역 복지관, 수련관 등과 연계한 상시 활동 수행
 - 예산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 기금으로 지원
 - 은평구의 마을축제와 같이 구별 회원들이 구 단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
 - 구 단위 기업체, 상점 등의 편당, 협찬, 후원 등을 통해 제원 마련

<표 25>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네트워크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2014	-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7개년 계획		(필요성, 공감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 각 구청과의 관련 논의 추진 - 관교테크노밸리 추진단과의 기업체 문화클럽 현황 및 육구조사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조사와 연계 추진)
	2015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구성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협력 체계 구축 - 구별 시범활동(축제 참여, 문화나눔 등) 추진
	2016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협력 체계 확대 - 구별 활동(축제 기획 및 실행, 문화나눔 등) 확대 추진
	2017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의 장르별, 섹터별 활동 확대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간 교류 활동 확대 - 성남시 외 타 지역 문화클럽과 교류 추진
	2018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논의 공론화 (재원, 활동내용의 자율성과 자발성 기반으로 확대)
	2019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계획 수립 (재원, 활동내용의 자율성과 자발성 기반으로 확대)
	2020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재원, 활동내용의 자율성과 자발성 기반으로 확대)

(4) 전국 단위 클럽 교류 추진

- 2단계 5개년 계획에서 전국 단위 클럽 교류 계획을 수립
- 이에 따라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을 2012년부터 추진
 - 2012년: 11개 지역 19개 클럽 참여
 - 2013년: 18개 지역 48개 클럽 참여
- 3단계 7개년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확대 추진함
 - 각 지역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한 전국 단위 클럽 교류 네트워크 구축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협력으로 추진
 - 성남지역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 보다는 초기 사랑방문화클럽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경험 및 노하우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각 지역재단에 교류 협력 테이블을 통해 전수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1회 행사를 성남시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주도로 개최 후 지역순회사업으로 전환, 발전시킴
 - 향후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를 ‘대한민국 국민문화제’로 발전시키는데 중심

역할 수행(일본의 국민문화제 참고)

<표 26> 전국 단위 교류 네트워크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제3회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개최 (참여지역, 클럽 확대)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협력사업 제안과 논의 - 문화부 지원 방안 협의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
	2015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성 및 출범을 성남에서 공식화함 - 제4회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개최 (구제적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의 교류 및 발전방안 논의)
	2016	- 성남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의 공식 전국 지역네트워크 활동 추진 (제 1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체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를 성남시에서 개최)
	2017	- 제 2회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 순회 개최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우수클럽의 참여 - 장르별/기업체 클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2018	- 제 3회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 순회 개최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우수클럽의 참여 - 장르별/기업체 클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사업 확대 -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추진의 공론화 및 선도적 역할 담당
	2019	- 제 4회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 순회 개최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우수클럽의 참여 - 장르별/기업체 클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사업 지속 -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추진 세부계획안 수립에 선도적 역할 담당
	2020	- 제 5회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 순회 개최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우수클럽의 참여 - 제 1회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성남시 개최 추진

(5) 국제 생활예술 교류 추진

① 사전 고려 사항

- 국제교류 행사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워줄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기존의 천연일출을 적인 국제교류가 아닌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철학이 들어간 국제교류 전략이 필요함
- 본격적인 국제교류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민간 차원 국제교류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성남문화재단에 적합한 유형을 찾고, 이를 토론회 혹은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국제교류라 자체를 ‘새로운 문화적 시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국내에 민간 국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일상적인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결국 온라인 기반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기반 구축을 위한 최선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이전의 성공적인 국제교류 과정
 - 2009년 9월 15일 성남문화재단은 ‘세계문화클럽포럼’을 개최하여 미국(돈 아담스), 영국(로빈 심슨), 독일(안드레아스 캠프), 일본(나카다 히로미), 불가리아(나데즈다 사보바)의 생활예술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자발적 예술활동과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견해를 받는 기회를 마련함²⁸⁾
 - 2012년 5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및 교류행사가 향후 개최를 합의했음
 - 2013년 6월, 중국문화부 관계자가 우리나라 문제부의 추천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방문해 “향후 베이징 시민문화클럽과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상호교류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²⁹⁾

② 추진 방향

-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
- 국제교류 행사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워줄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국제교류는 각 나라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성과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서로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포럼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여기서 활동가라고 함은 전문가가 아닌, 실제 지역에서 생활예술을 펼치고 있는 인사를 뜻함
- 국제교류는 국제포럼은 베이징 시민문화예술클럽과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의 상호교

28)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

29)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

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전 성과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방문과 초청으로 이어진 기존 국제교류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 민간 국제교류에 대한 상을 정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함

③ 추진 내용

- 웹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 창출을 통한 민간 국제교류 추진
- 온라인 전시장은 플랫폼 개념³⁰⁾의 장으로 구성하며, 민간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유도
-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해외의 문화예술 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온라인 공간창출은 개발비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수 있음
- 타 국가의 기관 혹은 단체와 공동개발을 할 경우 다양한 시민문화 교육 정보를 일괄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민간 예술 온라인 공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전개할 수 있음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스타탄생 등의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사연들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국제 생활예술단체 결성을 통한 네트워크 확산
- 국제교류가 책임있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민간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동북아 민간 국제 생활예술기구 설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임
- 동북아 민간 국제 문화예술 기구는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건전한 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표 27> 국제 교류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시와 국제 교류 공문화 - 국제 생활예술교류의 상 정립
	2015	- 지역 내 생활예술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한 합의 도출 - 국제 교류의 목표 및 내용 등 수립 - 온라인 교류 기반 구축 연구

30) 최근 IT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여기서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며 상호 교류한다는 의미로 쓰임. 유튜브의 예처럼 기반시설이 마련되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이 모여서 상호 활동을 하게 됨

		- 중국과의 교류 추진
2016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를 위한	
2017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를 통한 국제 기구 설립 및 공동작업을 통한 온라인 공간 창출	
2018	-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 추진(성남에서 제 1회 개최)	
2019	- 2차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 추진	
2020	-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추진	

(6) 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적 여가적 활동 확대

① 목적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의 사회공헌성 강화
- 사랑방문화클럽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 확대

② 추진 내용

- 클럽네트워크활동은 회원들이 자신의 여가를 보다 더 잘 보내려는 것
- 자신의 취미활동과 자신이 속한 클럽의 활동이 우선
- 그러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은 또한 문화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도 중요한 목적
- 자신의 여가활동이 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게 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문화소외층을 위한 문화공헌활동 외,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협력한 캠페인 등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확대시켜 나감
- 환경보호 및 학교 및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동을 확대시켜 나감
- 사랑방문화클럽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캠페인의 홍보대사 등을 담당할 수 있음

※ 예시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및 축제 등 팀별 또는 네트워크활동 시 교육청 또는 청소년육성재단과 협력하여 사랑방문화클럽 공연 또는 전시 시 해당 기관이 부스를 차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
- 행사 중간 사랑방문화클럽 및 해당 기관 담당자가 관람객에게 관련 문제를 알리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짐

3) 문화매개자로서의 제단 상근자와 역할 증진 방안

- 문화매개자로서의 제단의 담당자를 포함한 제단은 직접적으로는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의 발전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예산제’와 같은 직접적인 참여와 논의 구조 외 생활예술활동가를 육성시키는 것 또한 제단의 역할이라고 봄
- 활동지원에 대한 긴밀한 협의는 상시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사랑방문화클럽의 지향 목표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점임

(1)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 활동가 육성

- 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통한 시민과 문화클럽의 성장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문화도시 성남을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 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출발
 -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 속 창작집단’ 이고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을 잘 배워보고 싶은 사람, 능숙한 솜씨를 뽐내고 싶은 사람,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시민은 생활예술 활동가로 성장

- ② 생활예술활동가를 영역별로 생활예술조직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로 분류해 볼 수 있음

<표 28> 생활예술활동가의 유형

유 형	역 할	대 상
생활예술조직가	-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예술인들은 이끄는 역할	- 운영위원, 클럽지기
생활예술기획자	- 생활예술에 대한 비전,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	- 장르위원회 대표
생활예술교육자	- 클럽 활동을 통해 양성된 강사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예술기량을 교육하고 나누고자 함	- 강사

③ 생활예술활동가 양성

- 추진 목적
 - 사랑방문화클럽 활동가들을 보다 목적 의식을 가진 생활예술활동가로 육성
 - 시민 주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초를 다짐

- 영역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생활예술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 (가칭)생활예술학교에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표 29>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대 상	교 육 내 용
공 통	- 문화공동체의 가치와 시민의 역할 - 생활예술과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치와 역할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1,2단계(2006년~2013년) 의미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3단계(2014년~2020년) 비전 - 문화클럽, 문화마을 조성 및 활발한 해외사례 탐방
생활예술조직가	- 문화공동체의 다양한 해외모델 - 문화마을만들기 주제, 범위, 역할 - 성남의 문화클럽 육성 및 네트워크 방안 - 국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 문화도시 기획자, 교육자의 역할 - 해외 장르별 네트워크 구축 - 기획서 작성과 재원마련 - 사랑방클럽축제 기획 - 생활예술학교와 연계

- 생활예술활동가 인재풀 구성

- 조직대상

- 사랑방문화클럽 명예위원(전직 운영위원, 기획위원)

- 추진내용

- 역량있는 사랑방문화클럽 명예위원을 생활예술활동가 인재풀로 흡수

- 장르별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 동별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 (가칭)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사업과 연계

<표 30> 생활예술활동가 육성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 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활동가 양성 기반 조성
	2014	- 사랑방문화클럽 3단계 7개년 발전 방안에 대한 운영위원 워크숍 - 분기별 신인 클럽 대상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교육
	2015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계획 - 사랑방문화클럽 3단계 7개년 발전 방안에 대한 클럽지기 워크숍
	2016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인재풀 구성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개설
	2017	- 성남 생활예술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2기
	2018	- 전국 및 세계 생활예술활동가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3기 - 생활예술활동가 활동 시스템 구축
	2019	- 전국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4기
	2020	- 세계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5기

(2)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

① 목적

- 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높이고, 생활단위 생활예술 향유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 ‘사랑방 생활예술 학교’는 2단계 5개년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이기도 함.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로 발전

② 전제 조건

- 생활예술 개념은 순수예술, 고급예술, 전문예술, 엘리트예술, 공식예술 중심의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관심과 동기에 의한, 전방위적인 공간 및 영역에서 펼쳐지는, 아래로부터 생성되어 솟구쳐 오르는 예술적 실천을 지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³¹⁾
- 생활예술학교는 생활예술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어야 함
 - 생활예술학교 개념에 의거해 생활예술학교는 최소 3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함
 - 첫 번째 자유로운 자발성의 원칙
 - 스웨덴 민간 교육기관인 ABF는 “모든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와 평등에 기초한다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모든 것을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 주민들의 실제 필요에 따른 교육 내용을 스스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자발성 지수를 검토
 - 둘째, 지속가능한 연속성의 원칙
 - 생활예술학교의 각 프로그램이 해당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재생산될 수

31)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

- 주민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5~10명이 습득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하게 되면 이후 재단에서 문화매니저를 파견해 공간과 강사 등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
- 스웨덴 교육기관 ABF는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터디 서클을 만들 수 있고 ABF 각 단위 조직들은 새로 조직하길 원하는 사람을 도와 함께할 사람을 모아주고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줌
- 생활예술활동가의 역할
 - 생활예술기획자, 교육가 등의 생활예술활동가는 문화와 관련해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것
 - 이들뿐만 한 명의 주민에게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안내할 것인가와 함께, 동네의 문화 인프라를 파악해 해당 주민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
- 운영 기준
 - 인천 문화바람 같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강의료 등은 수강생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저소득층 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층의 교육은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젝트와 연계함

<div><표 31>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div>		
구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사업의 공문화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성남시 논의 테이블 운영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2015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추진(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 평가 및 개선점 도출
	2016 ~ 2020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사업화 본격 추진(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외 1개소)

4)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거점 공간 확보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 시민문화활성화 정책인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능이 성남문화재단에서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예술학교의 목표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와 연계된 사업 추진을 제안함
- 더욱이, 이 사업은 2단계 5개년 계획의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임이기도 함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셋째, 사람 관계성의 원칙
 - 생활예술학교는 예술의 기술적 성취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덕목을 습득하는 과정임
 - 생활예술학교는 춤 아뜰쥔 → 혼 아뜰쥔을 양성하는 과정이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함

③ 추진 내용

- 각 구별 거점 공간에서 추진
 - 생활예술가, 생활예술 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교육대상자를 구분
 - 역량내용과 각 역할의 발전 수준에 맞는 역량 수준을 분석하여 역량 맵을 구성함
 - 역량 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함
 - 실행과 현장 중심 교육
 -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예술 활동 및 접근 기회 확대
 - 시간과 공간을 관용적으로 개방하고 풀어주어 마음껏 내재된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를 넘어서 학생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다문화 아동· 청소년 포함)의 인성교육을 위해 협력
 - 미래사회에 대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응 방법의 준비는 예술적인 창의교육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 다양한 예술교육 경험을 하게하여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워 나감
 - 생활예술학교 시범 사업 후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작업
 - 2013년 성남시 생활예술학교 시범 구를 선정han 뒤 프로그램 진행
 - 특정 연령, 특정 직업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험적 접근이 필요
 - 10대, 20대, 30대 등 연령별 세분화, 주부, 직장인, 상인, 직장인, 중장년 비정규직 여성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접근을 시도
 - 각 프로그램은 10명~15명을 넘지 않도록 해서 참여자들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강사는 사랑방문화클럽회원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성 높은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섭외
 - 또한, 역량 높은 은퇴자 등의 고령인구층을 강사로 활용
- 프로그램뱅크 방식의 운영모델 검토

- 생활예술가, 생활예술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내용과 각 역할의 발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본 사업의 모델은 인천 문화바람으로 설정함

(2) 주요 내용³²⁾

- 각 구별 1개소 운영 목표(분당, 수정, 중원, 판교 등)
 - 현재 분당, 수정구는 기존의 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을 활용. 중원 및 판교 지역 1개소 신규 확보
 - 구별 거점형 공간 운영 : 최소 4인 이상의 상근인력 배치
 - 자원봉사, 재능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 인력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의 상근인력 필요 예상. 재원은 사랑방문화클럽발전기금 및 회원비로 구성

<div><표 32> 문화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의 차별성</div>		
구분	기존 문화시설 조성사업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목표	관람 위주의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들의 체감창작활동 지원
조성방식	신규 건립 방식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방식 &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 방식
	관 위주의 Top-down approach (일방적 공급)	민간 중심의 Bottom-up approach(자율적 공급)
운영방식	획일적 시설구성 및 지원방식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시설구성 및 지원
	공공 소유 및 공공 운영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운영(주민운영위원회 구성) 유도
프로그램	강좌형 관람형 프로그램 중심	회원들의 회비(또는 출자금)를 통한 운영
		동호회 등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제공
인력운영	전담인력 중심	체협 및 창작 프로그램 중심
		지역의 이슈와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
지원방식	전담인력 중심	전담인력 외에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상주단체 활용
		주인감사 및 지역활동가 양성
이념	문화의 민주화	리모델링 비용, 시설 및 기자재 비용 지원
		운영바사임비 지원
		플랫폼 지원 (시설 및 기자재 대여, 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문화민주주의, 자율성, 공공성, 자생성(지속성)

32)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 시민문화활성화 정책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양혜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활성화 방안 연구진 워크숍 자료, 2013’의 표와 그림을 사용함

<표 33> 구별 거점 공간 상근인력 구성안

구분	업무내용	인력
센터장	운영 총괄	1명
기획운영인력	사업개발 및 운영	1~3명
지원인력	네트워킹 및 거점지원 업무	1~2명
관리인력	시설 유지관리	1~2명
기타	복지사, 상담사, 사서 등	1~2명



<그림 34> 구별 거점 공간 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참여기제 포함
 - 동호회 대표 및 주민대표 5~10인으로 구성
 - 1~2년 임기
 - 1~2주에 1회 운영위 회의 진행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장도 운영회의에 참석
 - 홍보, 센터운영 전반, 연합공연 또는 지역축제 참여, 회원관리, 주민참여 관련 논의
 - 연말 보고대회, 예결산회의 진행
- 가능한 동호회활동과 테지단스,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자원봉사의 연계를 통해 자율적·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 문화예술 전문단체에 활동공간을 지원(상주단체 지원)하고 대신 거점공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의무화
 - 다만 예술단체의 본연의 역할은 예술창작활동임을 고려하여 재능착취가 되지 않도록 1주에 1회 정도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혹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동호회 구성원들이 타 동호회에 대한 재능기부로서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통화 제도를 활용한 공간 이용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시

- 직장인 동호회가 아동청소년 동호회 강습 지원, 멘토-멘토 프로그램 지원, 동호회의 사회공헌활동 비용 지원, 동호회간 연합공연 등에 대한 지원
- 초기은퇴자 및 전직직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커뮤니티 공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표 34> 거점 공간 운영 및 참여자의 활동 내용

구성	내용
상근인력	· 경영 및 기획 업무 · 시설 및 장비 관리 업무 · 프로그램 운영 업무 ※ 사회복지사, 문화복지사, 상담사 등 추가 고려
공간 이용자	· 교육 풀앗이 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참여 · 동호회 연합공연 또는 지역축제 참여 · 소외계층 재능기부
지역주민 자원봉사 인력	· 시설관리 업무 · 프로그램 운영 보조
상주 예술인 및 단체	· 강습 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참여

- 주민들이 운영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운영자 교육 및 워크숍 포함
- 지속적인 주민 중심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 제공
- 지역 내 거점공간 담당자들이 상호 정보교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숍 및 교육 지원

(3) 재원 확보 및 운영

- 지역 내 유휴 공공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사람방문화클럽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 추진할 경우, 인건 문화바람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운영단체에게 초기 공간 매입 또는 임대비의 장기 저리 용자(5년 이상)
- 원금은 용자 기간이 끝나면 반납. 원금은 회비, 기부금, 자체 수익금으로 확보
- 영국 복권기금의 경우 시설 개선 및 임대료에 대한 장기 저리 용자제도가 있음

- 이 제도의 장점은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되어 다른 단체 또는 다른 목적의 공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문제는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 이를 공론화를 통한 법적 제약요인 등을 검토한 후 시행이 필요

※ 인천 문화바람 사례

- 인천 문화바람의 경우 인천문화재단이 3년간 2억5천만(보증금)을 지원하여 자체 공간을 확보, 운영
- 회비, 수익금 등으로 지원금을 갚기 위해 회원들과 상근인력들이 많은 노력을 함
- 이 과정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과 멤버십이 형성됨. 이에 따라 자생성과 자발성이 강하게 응축, 발현됨
- 그러나 3년 상환기간이 짧아 지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음. 보다 긴 장기적 용자가 필요하다

<표 35> 구별 거점 공간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중원구 후보지 선정 및 공론화 - 분당, 수정 등도 추가 후보지 조사 실시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15	- 문화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사업 지원과 계획 수립 - 선정 공간 리모델링 - 운영 프로그램 및 주체 선정과 수립
	2016	- 구별 1개소 운영 체계 구축 - 사업 모델 및 내용의 평가 및 개선점 마련 - 공간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7	- 거점 공간 운영 활성화 - 추가 공간 후보지 조사 및 선정
	2018	- 추가 거점 공간 확대 - 재원 조성 및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구축(성남시 생활예술지원 조례)
	2019 ~ 2020	- 거점 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지원조례 제정 추진³³⁾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로 하나로

33) 관련 내용은 2009년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에서 상당수 인출함

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필요

- 2009년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제안
- 그러나, 지역 내 조례 제정 환경 조성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실행하지 못함
- 2012년 문화부 '지역전문문화브랜드' 대상 수상에 따라 사람방문화클럽이 성남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인식되고 성과도 인정됨에 따라 이러한 우호적 환경에서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함
- 또한, 2013년 내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과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부천시와 인천시가 생활예술지원조례를 추진했으나 제정하지 못함. 생활예술지원 조례에 대한 지역 내 인식 및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생활예술 진흥 및 정책적 보완을 아우른 조례를 '생활예술 지원법' 등으로 명명하고 이를 준비함
- 성남의 문화비전 확산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 조직 구성 및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 준비 필요
- 조례제정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조례제정 시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전문가-법률전문가-시민 및 시민활동가간의 전문 조직체를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연구하고 실질적 시안 등을 도출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 개최
- 조례 제정 시안 구성 : 성남시의 문화비전 및 세부 문화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근거 내용을 총체적으로 구성
- 성남시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 조례제정 발의를 위한 성남시 관련 행정가, 시의원 등과의 대화모임 등의 네트워크 지속

<표 36> 사람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연도별 추진계획(2014~2020)

구분	연도	세부사업내용
3단계 7개년 계획	2014	-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예산제 시행
		- 사랑방문화클럽 발전기금 추진
		- 사랑방문화클럽 장르별 활동의 시스템 구축
		-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 시행
		- 클럽데이 시범적 추진과 평가
		- 사랑방문화클럽 구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 제3회 전국시민문화클럽한미당 개최(참여지역, 클럽 확대)
		- 사랑방문화클럽 생활예술활동가 양성 기반 조성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 중원구 후보지 선정 및 공론화(분당, 수정 등도 추가 후보지 조사 실시) - 생활예술지원 조례 제정 공론화
2015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 장르별 전국 네트워크 시범 사업 계획 - 지역별(가정별) 클럽데이 확대, 지속 추진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구성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성 및 출판물 성남에서 공식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추진(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 문화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사업 지원과 계획 수립 - 성남시 생활예술지원 조례 제정
2016	- 사랑방문화클럽 장르별 조직 사업 확산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협력 체계 확대 - 제 1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최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를 성남시에서 개최 - 장르별/기업체 클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사업 확대 -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추진의 공론화 및 선도적 역할 담당 - 구별 1개소 운영 체계 구축
2017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의 장르별, 선택적 활동 확대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를 통한 국제기구 설립 및 공동작업을 통한 온라인 공간 창출
2018	- 구별 그리고 전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논의 공론화 -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 추진(성남에서 제 1회 개최)
2019	- 구별 그리고 전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계획 수립 - 전국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2020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 제 1회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성남시 개최 추진 - 세계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 참고 자료 -

<민중의 집>, 정경섭, 레디앙, 2012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성남문화재단, 2010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연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생활예술인의 사회성 여가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방주영, 중앙대 석사논문, 2013

<생활예술 지원방안 연구>, 문화부, 2012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활성화 방안 연구 워크숍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2013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2006

<커뮤니티와 아트>, 경기문화재단, 2011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정관 참조(<http://www.snart.or.kr>, (사랑방문화클럽 자료실)

한겨레신문, 2008년 2월 3일자 보도, <판교구' 추진에 '분당시 독립' 논쟁 재점화> 기사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3단계 7개년(2014~2020)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인 : 신 선 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 하 동 근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 쇄 처 : 진흥문화(주)

발 행 일 : 2013. 12. 13

© 성남문화재단